

2014 AUTUMN

VOL.45

평신도



- 특 집 |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 만 남 |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정순택 주교 인터뷰
- 이야기 |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 나눔 |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김태영 회장
- 배움 | 허연 기자의 명작 속 하느님

평신도

2014 AUTUMN VOL.45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Editor's Letter



그리스도의 평화!

지난여름 우리는 교황께서 방한하셔서 기쁨과 설렘으로 닳새를 보냈습니다. 교황께서는 곳곳에서 말씀과 몸짓 때로는 눈길로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나 따라 해 봐라, 이렇게' 하시듯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모범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따라서 할지는 순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묵주기도 성월과 위령성월 그리고 대림절 동안 읽힐 '평신도' 가을 호는 그 닳새간의 감동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김질하고자 교황 방한 특집으로 꾸며 봤습니다. 도착 하실 때부터 떠나실 때까지 곳곳에서 던지신 메시지를 가톨릭신문 기자로 일하는 이지연 편집위원이 정리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화보 역시 가톨릭신문사와 평화신문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124위 시복미사 참관기는 서울경제신문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30년 베테랑 기자 송태권 형제가 기쁜 마음으로 써 주셨습니다. 꽃동네 영성원에서 있었던 한국 평신도 153명과의 만남은 '평신도'지가 특별히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의 교황 환영인사, 교황의 격려의 말씀과 함께 조기연 수석 부회장과 이상요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의 참관기 등 다채롭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청년대회 참관기와 교황께서 바티칸으로 돌아가신 뒤 8월 20일 바오로 6세 홀에서 하신 방한 여운의 말씀도 담아 보았습니다.

'봉사'를 가을 호 대주제로 정한 데 맞춰 정순택 서울대교구 신임 주교와 이래수 수원평협 회장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평신도 에세이로 대구대교구 만촌1동 성당 김태갑 총회장(본당사목 봉사), 방송인 및 광고인 교우 단체인 시그니스서울 박희성 회장(직장사목 봉사), 한국순교자현양회 김기혁 홍보분과장(성지안내 봉사)이 원고를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평신도가 된다' 난에는 평협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김태영 회장이 옥고를 보내셨습니다. 편집장은 이 편지를 빌려 아주 애달픈 소식 하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본 '평신도'지에서 성화에 얽힌 이야기로 하느님 사랑을 들려주시던 권용준 안토니오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불의의 사고로 선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언론인신앙학교나 각 본당 사순·대림 특강 등을 통해 교우들의 신심에 불을 지피며 가톨릭계 큰 일꾼으로 성장하던 중이었습니다. 한창 물오르는 쉼 중반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그분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께서는 방한 기간 중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느님 자비의 신비에 어린 아이처럼 의탁하라는 의미가 내포하리라 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기도는 인간의 강점이며, 하느님의 약점"이라고 했듯이 하느님은 강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인간을 바로 세웁니다.

편집장 김선동 루카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 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4년 9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006@hanmail.net
대전평단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대구평단협	양해동	사무엘	yanghaedon@hanmail.net
부산평협	공복자	유스티나	kongbog@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jy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isa1208@hanmail.net
의정부 평단협	권미영	모니카	teletong@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두현자	울리안나	doonim53@hanmil.net
구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김혜원	울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CONTENTS

VOL.45 | 2014 AUTUMN

평
신
도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손희송 베네딕도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위원 고계연 베드로, 김서영 마리아,
김문태 힐라리오, 명백훈 프란치스코,
배봉한 세례자요한, 오완수 바오로,
이은경 로사리아, 이지연 마리아(가나다 순)
편집장 김선동 루카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특 집	02 교황 프란치스코 한국 방문 화보
	08 평신도 지도자와의 만남 중 평협 회장 환영사 권길중
	09 평신도 지도자와의 만남 중 교황님 말씀 프란치스코 교황
	11 평신도 지도자와의 만남 참가기 (1) 조기연
	14 평신도 지도자와의 만남 참가기 (2) 이상요
	15 교황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 강희덕
	16 교황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장재덕
	17 교황님의 방한 메시지와 가르침 이지연
	20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시복미사 참례기 송태권
	23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가기 이효은
	25 한국 방한 후 바티칸 첫 일반일현 교황님 말씀 프란치스코 교황
휴 식	27 공소의 가을 풍경 김한얼
만 남	28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명백훈
	32 정순택 주교 인터뷰 배봉한
이야기	35 그곳은 과연 어디였을까? 김기혁
	38 따뜻한 마음으로 소리 없이 김태갑
	40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박희성
	42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 (3) 지영현
나눔	45 김길수 교수의 복지들의 영성 (3)
	48 평신도가 뵈다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김태영 회장
배움	50 김문태 교수의 인문학 강좌 (3)
	52 아가다의 음악편지 (3) 양인용
	54 가타리나의 영화 이야기 (3) 조혜정
	57 마리아의 성화 이야기 (1) 고종희
	60 허연 기자의 명작 속 하느님 (3)
	63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64 평신도 양서 신동수
	66 영어 미사 길라잡이 (3) 김태식
소식	68 평신도 뉴스



2014 교황 프란치스코 한국 방문 Pope Francis' Visit to Korea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으로 오신다면 어떤 리더십을 보여 주실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근접한 모습을 보이리라는 데 많은 이가 공감한다. 德香萬年! 머물고 싶었던 그 닷새간의 감미로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되새김질하고자 교황 방한 때 모습과 느낌을 엮어 특집으로 꾸몄다. <편집자註>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평화방송 · 평화신문)

첫째 날 / 8월 14일



▲ 대통령 공직자 외교단과 만남(청와대)



▲ 한국주교단과의 만남(한국천주교총연합회)



둘째 날 / 8월 15일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대전월드컵경기장)



▲ 김대건 성인 생가터 방문(솔미성지)



둘째 날 / 8월 15일



▲▼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슬릭성지)



셋째 날 / 8월 16일



◀ 서소문성지



▲▼ 124위 시복미사(서울 광화문광장)



셋째 날 / 8월 16일



▶ 장애인들과의 만남(꽃동네 희망의 집)



▲ 수도자와의 만남



▲ 태이동산(꽃동네)

▼ 평신도 지도자와의 만남



넷째 날 / 8월 17일



▲ 아시아 주교와의 만남(해미순교성지)

▼ 청년대회 폐막미사(해미읍성)



다섯째 날 / 8월 18일



▲ 타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

◀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명동성당)



평신도 지도자와의 만남 중 평협 회장 환영사

일시 _ 2014년 8월 16일 장소 _ 꽃동네 영성원

교황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권길중 바오로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성하께서 친히 한국과 한국교회를 찾아 주심에 대하여, 온 교회와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교황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순간부터 저희 모두는 설레는 마음으로 어린이처럼 그 날짜를 셈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님의 지향과 일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께서 발표하신 '복음의 기쁨'을 교구별로 묵상하면서, 교황님의 모든 사랑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의 입국 없이 몇몇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긴 세월 동안 감시와 박해 속에서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박해의 급박한 공포 속에서 교황청에 서신을 보내고, 중국 북경까지의 먼 길을 걸어서 수십 차례를 왕복한 일을 생각하면 교황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가난한 형제와 젊은이들을 특히 사랑하시는 교황님,

저희는 우리의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신지, 그 자유가 변방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써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음을 봅니다.

저희도 교황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기심으로 얽어맨 사슬을 끊고 잃어버린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찾아 변방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변방은 가난하고, 병든 형제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댈 곳조차 없는 가장 작은 형제(마태 25.40)이며,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난 형제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입니다.

휴전선 북쪽에서 굶주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저희들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을 북한 동포들, 하느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아시아의 백성들 또한 저희들이 찾아 나서야 할 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황님,
이제 저희들이 교구 주교와의 일치를 통해서 두려움 없이 변방으로 힘차게 나갈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합니다. 저희 평신도들을 만나주신 교황님의 특별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 지도자와의 만남 중 교황님 말씀

일시 _ 2014년 8월 16일 장소 _ 꽃동네 영성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약동하는 한국 평신도 사도직의 다양한 표현을 대표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한국 평신도 사도직은 언제나 변창하고, 시들지 않는 꽃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표하여 따뜻이 환영해 주신 가톨릭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권길중 바오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한국 교회는 사제의 수효가 부족하고 모진 박해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친교 안에서 대대로 보존해 온 평신도들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시복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은 그 역사의 감동적인 첫 장을 보여 줍니다. 이분들은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신앙을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애덕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대하는 삶으로도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값진 유산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봉사의 활동 안에 줄곧 살아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교회는 복음이 지닌 구원 진리와, 사랑의 마음을 정화하고 변모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일치와 정의와 평화 안에서 인류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풍요로움을 보여 주는 평

신도들의 믿음직한 증언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유일한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세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사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평신도로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여러 가지로 많고 또 여러분의 사도직이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현재 질서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 완성시키며 그분의 나라가 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교회의 사명 수행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여러 단계의 활동을 높이 치하합니다. 한국의 첫 그리스도인들이 보여 준 모범처럼, 신앙의 풍요로움은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루는 구체적인 연대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없기" (갈라 3,28)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활동과 증언으로 우리 사회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을 모셔다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선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선뿐만 아니라 인간 증진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난

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 증진이라는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도록 격려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품위 있게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품위는 매 순간 수많은 사람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돈의 문화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직 상태에 있는 남녀들이 그들 가정에 빵을 가져가고, 그들의 양식을 벌 수 있는 품위를 그들 마음속에서 느껴야 합니다. 또 저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교리 교사와 스승으로서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태로 한국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탁월한 공헌을 해 온 한국 가톨릭 여성 신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증언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가정생활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혼인한 부부들과 가정들이 교회와 사회 생활에서 그들의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어린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성과 청렴과 정의의 횃불이 되도록 인간적,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배우는 첫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이 보태는 도움이 어떤 특별한 것이든,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지속적인 교리 교육과 영성 지도를 통하여 더욱더 알찬 평신도 양성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일치와 선교 활동으로 교회의 성장을 위한 봉사에 여러분의 식견과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는 가운데, 온 마음과 정신으로 여러분의 목자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공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아시아 전역에서 그렇듯이 친교와 참여, 은사를 함께 나누는 영성에 기초를 둔 교회관의 발전에 전폭적으로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아시아 교회 45항 참조)

성덕과 열정으로 한국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도직의 혼이며, 하느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전해지고 자라나는(교회 현장 33항 참조) 성찬의 희생 제사에서 여러분의 사도직을 위한 끊임없는 영감과 힘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본당, 단체, 운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자애로이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께 기도 드립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에게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모송을 바칩시다.(강복)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잊지 마십시오!



평신도 지도자와의 만남 참관기 (1)

소박하고 겸손한 교황님을 느꼈다



조기연 마르티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부회장

“한국은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한 주목할 만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위대하고 잘 체계 잡힌 노동자들이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힘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교회는 기억과 희망의 수호자입니다. 곧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며 그 안에서 성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나이 든 이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횃불을 전달합니다. 그 안에서 과거의 증언에 대한 기억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됩니다”

(2014년 8월 20일 일반알현 강론 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집전하신 124위 순교자 시복 미사, 광화문 광장, 중증 장애인, 손을 빼는 버려진 아기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물려준 따뜻한 손, 저를 응시하던 갈색 눈동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신 위로의 강복..... 원고를 쓰려고 잠시 눈을 감으니 교황님의 4박 5일 방한 기억 중에 제일 먼저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교황님을 잠시나마 지근(至近)에서 빚는 영광의 시간 속에 남겨진 장면들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위엄과 장엄함의 공간이 아니라 소박과 겸손, 친밀함이 깊이 뻗 단상(斷想)만이 떠올랐습니다. 깊디깊은 눈, 어린아이와 같이 온화하신 모습, 그분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으며 따뜻

한 촉감은 아직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교황님의 방한과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은 저에게 뜻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 한국평협 제1차 상임위원회(5.27-28,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한국평협 최홍준 회장과 논의를 거쳐 서울평협 부회장으로서 시복시성 기도운동을 의안으로 제청하였고, 제2차 상임위원회(7.9-10,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집전하는 출범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기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평신도들이 바치는 기도과 성지순례를 통한 기도운동은 전국적으로 불타올랐으며 같은 해 12월, 박정일 주교님과 함께 한국평협 임원들이 로마 교황청 시복시성성을 방문하여 시복시성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평신도들의 기도운동으로 우리가 갈망하던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諡福)이 결정되었고, 2014년 8월 16일 오전 10시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집전으로 시복 미사가 봉헌되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복 미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되었다는

것도 특별한 하느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광화문(光化門)은 정부의 상징이며 권위와 복종을 상징하고 천주교인들에게 박해를 선포했던 곳입니다. 육조(六曹)의 거리, 특히 형조(刑曹)의 전옥서(典獄署), 좌포청(左捕廳)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께서 이곳에서 천주학을 믿는다는 죄로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받고 사형수로서 서소문 형장으로 끌려가 천주께 목숨을 바쳤던 길이었습니다. 형장으로 이끌려 가는 죄인들에게 수많은 구경꾼들은 침을 뱉고 저주하며 바보 천치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모진 고문을 받고 오랏줄에 묶여 십자가에 매달려 형장으로 끌려가던 순교자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영광의 길로 여기며 기뻐하며 끌려가던 곳이었습니다.

신해박해로부터 223년이 훌쩍 지난 오늘, 백만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 시복되는 순교자들을 보기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복미사를 지켜보았습니다. 2014년 8월 16일, 광화문에서 서소문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 하느님의 종들이 시복을 기뻐하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열두 살의 어린나이에 어머니의 순교를 지켜보고 뒤를 따른 이봉금 아나스타시아와 어머니 김조이 아나스타시아 모녀가 뿔뿔히 떨어져 기뻐하였고, 정약중 아우구스티노와 정철상 가를로 부자가 천주께 경배하는 모습을 묵상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 시복이

결정된 후부터 이 시복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과 평신도 사도직 단체와의 만남을 위해 음성 꽃동네로 가야만 했고 시복미사는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꽃동네 영성원에서 153명의 평신도들이 교황님을 뵙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회의실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교황님을 위해 새로 제작한 것 같은 흰 의자와 강론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앉으실 의자는 견고하게 만든 하얀색의 소박한 의자였고, 교황님의 문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황님 알현을 기다리며 교황님과 사진 촬영을 위해 3개 조로 나누어 의자 배열과 각자의 위치를 정하고 촬영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교황님께서 수도자들과의 만남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교황청 직원이 회의실을 방문하고 점검하면서 강론대를 치우고 의자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영성원 식당에서 가져온 아주 오래된 식탁용 의자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의자는 오래 사용해서 혹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낡



고 우중충한 의자였습니다. 교황님의 소박함과 겸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뵙던 교황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한국평협 권길중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교황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교황님은 마련된 단상에서 내려와 사회자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종 온화한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을 이어폰을 통해 동시통역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교황님께서 직접 우리 쪽으로 오셔서 가운데 앉으시고 촬영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3개 조로 나누어 촬영하려던 우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퇴장하시면서 저희들과 악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응시하시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아기 손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었고 오래오래 간직할 영광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린 복음의 씨앗인 순교자들의 증거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순교자들은 분명 세상의 삶과 하느님을 증명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혹독한 길에서 세상을 버리고 하느님을 택한 분들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택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승리자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1요한 2,17)라는 말씀과 같이 천상교회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그들의 증언이 세상에서 계속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순교자들의 위대함과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우리도 그분들과 똑같은 선택의 길에서 있음을 뜻합니다. 이 기억은 현재 새로운 증언이 되고 또 미래의 희망으로 남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평신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평신도사도직 단체들은 신자들을 양성하고 교회와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각자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봉사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교회의 미래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와의 만남 참관기 (2)

소통을 위해 낮은 곳을 향하시는 분

이상요 토마스 아퀴나스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

나는 두 번 놀랐다.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나를 설레게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나뿐만 아니라 온



국민도 교황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 교황과의 만남이 설렘을 주는 것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내면의 그 무엇 때문일까?

8월 16일, 음성 꽃동네에는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만남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우리는 한국평협 권길중 회장의 특별한 간청으로 사랑의 영성원에서 편안하게 교황을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런데 꽃동네 측이 특별히 만든 교황 의자와 연설대가 치워 지고 평범한 의자로 교체되었다. 교황청의 요구였다. 보도로만 접했던, 소통을 위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교황의 행보를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저녁 6시 30분, 드디어 교황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소성당에 들어서자 너나 할 것 없이 '비바일 파파(Viva il Papa!)' 연호가 터져 나왔다. 박철용 사무총장이 미리 연습을 시켰지만, 모두들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운 좋게도 앞에

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앉았던 나는 교황을 매우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연방 땀을 닦는 모습이 피로해 보였고 숨도 조금 가빠

하셨다. 계단을 내려설 때는 다리가 불안정한 것도 볼 수 있었다.

교황은 우리에게 던지는 연설에 원고에 없는 내용을 덧붙였다. "약동하는 한국 평신도사도직을 다양하게 대표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다음에 "꽃핀다고 했죠? (여러분 덕분에 한국 교회는) 늘 약동하고 꽃피는 교회였습니다." 하고 말하셨다.

우리 모두는 교황 방한 기간에 '교황앞이'를 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가난과 겸손, 소통을 누구나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 내기는 쉽지 않다. 교황은 몸에 밴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다. 설렘의 정체가 이것이었을까? 아무튼 이 행복한 기억은 그런 모습을 닦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변화시켜 보라고 속삭여 줄 것 같다. 

교황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

강희덕 가톨릭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회장



교황님의 방한이 결정된 후,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의회의 선물로 현 교황님과 4월 27일 시성되신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 전임 교황님의 미소 짓는 모습을 형상화한 청동부조작품을 만들었다.

그 미소의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의 미움, 다툼, 의혹, 절망, 어두움, 슬픔 등을 녹여내는 것이 사랑이며, 사랑이야말로 낮은 데로 임하시는 교황님의 진솔한 웃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84년 요한 바오로2세 전임교황께서 첫 방한 때 하신 첫 말씀인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를 새겨 한국 방문의 의미를 담았다. 이 형태는 평협 권길중 회장과 몇 분 임원들과 협의하여 정하였다.

8월 16일 아침부터 명동 성당에서 버스로 출발하여 저녁 6시로 예정된 평신도 지도자 단체 대표들과 교황님의 만남을 위해 음성 꽃동네로 달려갔다. 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품을 만들고,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크나큰 희생이며 또 한편으론 영광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고령의 교황님께서 일찍부터 서소문

성지, 124위 시복미사, 음성 꽃동네 장애우들을 장시간 동안 안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며, 수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지시는 것을 중계방송으로 보는 동안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나 개인의 믿음과 희생은 먼지처럼 가볍고, 교황님의 모든 순간은 중대한 의미를 던지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들과의 만남 첫머리에 선물 드리는 순서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환영사에 이어 교황님 말씀이 아까의 깨달음에 확실한 뜻을 주셨다. 자생적 신앙을 키운 순교자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평신도 단체장들의 노고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기대했으나, 우리는 많은 은사를 받았으며 모든 일의 행함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 하느님 나라가 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다.

아! 그것이 교황님 존재의 중대함이었구나. 교황님을 뵈는 의미가 이것이로구나. 나의 존재는, 가톨릭미술가협회 회장으로서 의미는 오로지 주님께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교황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이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교황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장재덕 바실리오 가톨릭목공예회 회장

지난 8월 16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준비한 선물을 교황님께 드리는 영광이 저에게 지명되었습니다. 선물은 교황님 집무실에 놓이게 될 작은 조형물인데, 선물의 모양은 조선시대 교난이 있을 때마다 신앙을 증거하는 천주 교우들의 목에 채우는 형구입니다. 형구의 상하 비례를 다르게 하여 사람이 형구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있는 순교의 인자가 배어든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전면 하단에는 복자 황일광 시몬의 신앙고백 중 “내가 천민임에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글을 이탈리아어로 새겨 넣었습니다.

순교자의 목에 채웠던 형구의 모양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영성적 조형미를 유지하고 제작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면, 시복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하느님의 종’ 124위를 위한 항구한 기도가 있었음을 느낌으로 와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정신과 우리네 토속적 형구와 융화되게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직접 포장에서 선물을 꺼내서 손에 드시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저를 주님 안에서 크게 기쁘게 만드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제 영의 실조를 진단하시고 영양제를 주셨습니다.

“별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1코린 1,18-24) 나무십자가는 예수님을 절망, 공포, 죽음으로 처형하는 가장 잔혹한 사형 형구였지만, 그로 인한 희망, 승리, 부활이 내재된 그리스도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교황님의 방한 메시지와 가르침

100시간의 기적

이지연 마리아 가톨릭신문 기자

세상의 끝에서 온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00시간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 동안 그가 남긴 놀라움과 감동, 위로와 치유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 교황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남긴 메시지와 가르침을 하나씩 짚어본다.

교황 방한이 공식 발표되면서,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다. 많은 이들은 1980년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가져다준 한국 천주교회의 국내외적 위상의 제고와 급격한 교세 팽창을 기억한다. 이들은 즉위 1년도 안 돼 타임지 표지를 기록한 대중적 인기, 파격적인 언행이 가져오곤 하는 인도주의적 감동, 특히 다른 ‘경쟁국(?)’들을 물리치고 오로지 한국만을 겨냥한 순방의 독보성에 도취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한국 천주교회의 상당히 세속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줄 것이며, 90년대 들어 침체일로에 교세 증가율을 수직 상승시켜 줄 것으로 내심 기대한다. 양적 팽창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일부 외신에서 노골적으로 지적하듯, 성공적인 ‘종교 마케팅’의 의중으로 불릴 만하다. 더욱이 기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른 종교들 중에는 교황 방한으로 인해



자기 식구들 중 상당수가 천주교 쪽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급기야 교황 방한 반대 운동까지 벌이는 촌극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는 교황이 한국을 ‘간택’한 이유가,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해 상당한 업적과 성과를 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교황과 교황청, 세계 교회가 높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은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이해할 만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태도임은 분명하다. 교황 방한을 일종의 지적이나 업적으로 여기는 심리 역시 교황 방한의 본질은 아닌 듯하다.

또 일부에서는 방한 일정을 두고 교황의 본 뜻과는 다르다는 우려, 즉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고, 심지어 교황 방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까지 우려의 대상이었다. 또 일부 장애인 단체는 특정 복지시설 방문이 해당 시설의 부조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정작 14일 한국 땅을 밟은 교황 프란치스코는 참으로 ‘고수’였다. 어떤 우려도, 기우도 불식시켰고, 여하한 형태와 의도의 불순한 개입

도 무산시켰다. 그것은 소박하고 단순하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지만, 동시에 단호한 교황의 캐릭터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힘이었다.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교황이 도착해 주교단과 가진 만남의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은 아니다.”며 교황은 항상 “힘들어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갈등과 고뇌가 풀어지지 않는 곳을 찾아가서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셨다.”고 말했다.

강 주교는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동북아 열강들의 힘자랑이 벌어지는 곳, 급속한 산업화로 상처 받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곳으로 고백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교황에게서 축하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고난의 땅에서 과연 복음적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4박5일간 이어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와 말씀은 많은 면에서 한국주교회의 의장의 이러한 고백에 조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교황은 이미 교황으로 선출되고, 「복음의 기쁨」을 반포할 때, 한국교회에 그러한 자기 성찰과 철저한 교회 쇠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냈었다. 그리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는 10여 차례에 걸친 강론과 연설들에서, 그리고 고통 받는 이들을 어루만지는 손길과 눈길에서, 일관되게 한국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현대사회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이끌리려는 유혹에 단호하게 저항해 스스로를 쇠신하며 고귀한 순교자들이 전해준 신앙 유산을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자양분으로 삼을 것을 간곡하게 권고했다.

참으로 많은 의미와 열매를 맺은 교황 방한이지만 우리에게 남기고 메시지와 가르침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황은 아시아의 젊은이들을 만나 항상 희망을 갖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했다. 이들과의 만남은 교황이 방한을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교황은 아시아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곧 세계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현재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미래의 주역이기에 교황은 이들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게서 길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124위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 역시 교황 방한의 결정적 이유였다. 하지만 교황은 결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03위 성인에 이어 또 다시 복자 탄생의 기쁨에 취해 있기만을 바라진 않았다. 교

황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며, 순교자들의 승리를 경축하지만, ‘이상화’되거나 승리에 도취된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현재의 끊임없는 쇠신 노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순교할 것인지를 성찰하도록 당부했다.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는 4박5일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되풀이된 교황의 메시지였다. 교황은 이 연대가 단순히 약간의 물질적 나눔이나 사회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부요 곁에서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는” 사회, ‘무관심의 세계화’가 만연한 현대 세계와 사회에서, 교황은 모든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존엄함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신과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가 스며들어야 하고, 모든 교회 생활에 이 연대가 반영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현대 세계의 유혹에 대한 저항은 교황이 단호하게 권고하는 가장 중요한 투쟁이며, 그 한가운데에는 물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 사회가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풍요에 빠져 있지만, 정작 부요해질수록 가난한 이들은 더 비참해진다. 사람이 중심에 있지 않은 인간 발전은 결국 사람을 해치게 마련이기에 교황은 물질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교황은 자비를 바탕으로, 당신으로부터 위로와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다. 비행기 트랩을 내리면

서부터 시작된 이 위로와 위안의 손길과 몸짓은 방한 기간 내내 온 국민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관심, 배려는 교황의 이러한 자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한편 교황은 친절하고 유머러스하고 따뜻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완곡하지만 날카롭게 피력했다. 특히 교황은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나타난 부조리와 불합리,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조차 매우 깊은 수준까지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행간에 의미를 담아 비판적 발언을 했다.

예컨대, 한국에 도착하던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공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연설에서 교황은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해, “정치적 분열, 경제적 불평등, 자연 환경의 책임 있는 관리” 등을 지적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함으로써 밀양, 강정, 쌍용, 4대강 개발 등 지난 수년 동안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분열시켰던 주요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교황은 또 같은 연설 뒷부분에서는 “한국 가톨릭 공동체가 이 나라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계속 열망한다.”고 말함으로써 교회의 대사회적 발언과 사회교리의 실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시복미사 참례기

송태권 요한 안젤로 포로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끝이 안 보이는 인파 속에 나는 있었다. 그 모든 사람을 나의 눈에 다 집어넣어보려고 까치발을 세워도 보았지만 허사였다. 멀리 세종대왕, 그리고 더 멀리 아득히 보이는 이순신 장군 동상 너머에도 사람들 머리가 뺨뺨하게 있지만 그 끝이 어딘지는...

그저 분명한 것은 장대한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를 이룬 아침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뿐. 젊은 사진기자 시절에 많은 현장을 몸으로 경험했던 나로서도 처음 접하는 엄청난 인간의 파도이다.

대체 무엇이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만들어냈을까. 월드컵이 열린 것도 아니고 민주화항쟁시위가 벌어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 같은 매머드 운집을 일으킨 보이지 않는 힘은 뭔가.

그리고 나는 왜 불리어 나왔을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권능이라고 알고 있으라고 한다면 나같이 얇은 신자는 무조건 고개를 푹 처박고 있을 수 밖에...

하지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리라고 고개를 다시 쳐드는 것이 또한 인간이다. 하느님이 하필이면 2014년 전 가나안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낸 뜻이 있는 것처럼 2014년 8월 16일 아침에, 동북아 끝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백성 수십만 명을 모이게, 한 이유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리라.

“하느님의 종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를 복자라 부르고 해마다 그분들의 축일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머릿속까지 달구던 한 여름 태양이 갑작스런 뭉개 구름에 덮여지고 서늘한 바람까지 불어 미사 시작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오전 10시 무렵. 교황께서 복자 선포를 하자 광화문에서 시청 앞까지 1.5km에 달하는 긴 거리에 우레 같은 함성과 환호가 물결쳤다.

가늘고 나지막한 목소리, 78세의 고령, 그 노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몇 마디가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는 경이로운 순간이다.

믿음도 감정도 깊지 못한 나. 그런 나 역시 탄성이 터져 나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구멍이 울컥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복자에 오르신 분들의 삶과 시복미사의 사연을 조금이라도 알면 누군들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분들이 드디어 복자가 됐고 몇 년 후면 성인에 오를 테니 지금의 후손들에게도 더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분들을 나는 광화문 광장에서 만났다. 그날 그들이 200년 전 고문과 옥고를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내려왔다. 그리고 복자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에 다시 오르며 그 땅을 축성하는 역사(役事)의 순간을 나는 목도했다. 그 기적 같은 시간을 현생의 시대에 가장 존경 받는 영성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재했다. 순교자의 땅에 교황님이 몸소 와서 시복하는 전례가 드문 낙타바늘구멍 자리에, 믿음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안 되는 내가 불리어 나왔으니 하느님의 무궁한 뜻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날 미사의 중심은 시복선포이지만 앞뒤 4시간 내내 가슴 벅찬 환희의 드라마였다. 미사가 열리기 1시간 전 목주기도에서 모두가 하나가 됐다. 소외된 이웃과 한반도 평화 등을 지향한 목주기도는 수십만 명이 함께 부른 고해와 희망의 대 합창곡이었다. 남녀노소와 각계각층, 검고 희고 누런 얼굴색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몸처럼 목주를 돌리고 한 입처럼 ‘영광의 신비’를 낭송한 20여 분의 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어찌면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이 같이 했을지도 모를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땅에서 일어났다. 나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수십만 인간의 무리가 하나가 되는 환희, 그것이 다시 땅과 어우러지고 하늘로 뿔려 공명하는 신비로움. 그 시간만큼은 일대의 만물이 한 덩어리가 되고 서로 소통하고 열리는 거대한 진동의 울림통이었다. 더 이상 어떤 장엄함과 경건함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 시간 까닭 모를 두려움이 나를 스쳐 지나간 것은 내 교만의 미몽을 그 무엇이 깨웠기 때문일까.

미사 전 하느님 사도의 사랑의 카 퍼레이드는 유쾌함이 넘친 또 하나의 감동이었다. 교황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나아가며 시민들

을 응대하고 만나는 아기마다 머리를 보듬고 입맞춤을 했다. 환호성을 지르는 군중 속에서 나는 영혼의 정화(淨化)를 느꼈다. 웃음과 울컥함이 동시에 뒤섞인 전인적 전율이 올 때마다 내 몸은 가벼워졌다. “교황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비바 일 파파!”의 외침은 다름아닌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갈구의 표시였다. 카 퍼레이드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베푼 교황님의 애덕도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사 강론이 끝난 후 묵상 시간은 태초의 시공간이었다. 웅대한 묵음의 메아리 속에 사람도 건물도 차량도 다 녹아 들어갔다. 그 많은 인간들로 꽉 찬 광활한 공간의 모든 것이 몇 분 동안이나 정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세속의 거리가 어떻게 그렇게 절대 요에 젖어들 수 있는 지. 경이로운 일이다.

목주기도, 백건우 연주 헌정, 시복선언, 강론, 영성체, 교황님의 강복에 이르기까지 4시간 동안 이어진 감동의 대하 드라마는 오전 11시 40분 막을 내렸다. 작열하는 태양 별을 막아 줬던 하늘의 양산이 스르르 걷힌 것도 이 시각이었다.

장장 4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자리를 떠나면서 아쉬워하면서 뿌듯하고 행복감이 넘쳐 보이는 시민들의 얼굴은 바로 나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그 어떤 영화, 스포츠경기, 정치이벤트도 그럴 수는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이와 감동과 기적의 울림이었다. 그 파장은 지금도 퍼져 나가고 있다. 하느님과 으뜸목자가 나와 남을, 우리 모두를 그 하나가 되게 했다. 유복한 사람, 가난

한 사람, 권력을 쥔 사람,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 좌절과 실의에 빠진 사람, 휠체어에 의지한 사람, 이주노동자로 온 사람, 북한에 가족을 남기고 온 사람, 육지 사람, 섬 사람,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뤘다.

하늘이 축성한 고귀한 제전이고 환희의 합창 교향곡이었다. 사랑과 평화와 희망을 뿜어낸 원천수의 샘이었다. 하늘의 빛이 땅에 온기를 주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생기가 다시 살아난 치유의 광장이었다.

축복의 낙원을 그날 그 땅에 만들어주신 은총의 이유가 무엇인지 외람되게도 나는 안다. 사랑, 평화, 화해, 용서의 땅이 되고 밀알이 되라는 거다. 12제자가 그랬듯이 그날 광화문 광장에 있던 이들이 백만 제자가 되어 “일어나, 비추어라”는 강력한 부름이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모든 한국인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한국인들에게 풍요로운 역사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더욱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화해를 이루는 사회를 위해 서로 화합하여 일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진정한 인간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

2014년 8월 16일, 하느님은 당신의 믿음직한 대리자를 통해 나와 우리와 대한민국의 가슴에 흰 장미 한 송이를 심어주셨다!

※ 그날 미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미사 전후의 날씨 변화에 대해 우물쭈물 이야기하니 아내가 단칼에 잘라 말한다. “월요, 그럴 줄 알았어요. 바티칸에서 교황님 방한 결정할 때 한국 여름 날씨 때문에 걱정했



사진 가톨릭신문 제6회

있대요. 하지만 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민망해지고 말았다.

고백 나는 화들짝 놀랐다. 내가 거기에, 그리고 참례기까지. 이래도 되나. 믿음이 약한 나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나는 주일미사조차 게을리하는, 겨우 비활동 신자를 면한 신자다. 이런 내가 저널리스트로서가 아니고 신자로서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을 써도 되는지 가물거렸다. 나는 30년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외부 원고 요청에 가까스로 한 두 번 정도나 응했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시복미사 참례기를 써보지 않겠느냐는 김선동 루카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장님의 첫 제의에 자석처럼 끌려 들어갔다.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잡아끌었다.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관기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하느님 아래 함께 미사를 드렸다

이효은 글라라 AYD 봉사자, 천안 쌍용3동 성당

“온니, 보구시포씨!”

서툰 한국말로 내게 인사를 건네는 리지아는 동티모르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를 참가하러 온 17세 소녀이다. 내가 리지아를 처음 만난 곳은 인천공항으로 AYD 참가자 마중을 나갔을 때였다. 2014년 8월 10일 새벽 5시, 태국을 시작으로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온 참가자를 반기며 우리는 연방 “Welcome!”을 외치면서 그들의 첫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슬슬 많은 인파에 지쳐갈 때쯤 20명 정도의 동티모르 참가자들이 게이트를 빠져 나왔고 이때 리지아를 처음 만났다. 우리는 공항에서 친해진 덕분에 AYD 행사 중에도 눈에 보일 때마다 사진 찍고 포옹하고 토닥여 주고 서로 찾기도 하는 나름 절친이 되었다.

이렇게 리지아처럼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는 참가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형편상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자 발급이 어려웠던 참가자들도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AYD에 교황님께서 방문한다는 이유로 AYD 참여를 불법화하여 130명 정도 들어올 예정이었던 중국 참가자들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못한 채 그저 우리를 믿고 인천공항으로 속속 도착했다. 나를 포함한 공항팀 모두 초조하게 중국 참가자를 기다리며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에 안도

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가톨릭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전에는 중국이 가톨릭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번 AYD 참가를 통해 중국 가톨릭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까지 온 중국 참가자와 비록 오지는 못했지만 중국에서 계속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중국 신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고 이 글에서나마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여곡절 끝에 9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각자 교구대회에 참여한 뒤 부슬부슬 비가 오던 13일 AYD 개막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슬피성지에 모두 모였다. 비가 오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얼굴 찌푸리는 사람 없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 행복한 모습이었다. AYD가 시작 되기 전까지의 물음들. 이날의 내가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아래 모일 수 있는 것일까? 진짜 뭔가 되고 있기는 한 건가? 그 답이 모두 그날에, 그 안에, 그들에게 있었다. 그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하느님 아래 함께 미사를 드렸다.

AYD 기간 중에 매일 있었던 미사는 내게 가장 좋았던 순간들이었다. 특히 사비오혼 주교님 강론 말씀 중 SMS는 봉사자들이 모두 인상 깊

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였다. 나는 그 당시에는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강론 글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잠시 소개하자면 SMS는 Service Mission Sanctity의 약자로 섬김, 사명, 성스러움이다. 순교자들의 죽음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한국의 천주교 역사와 관련해 순교자들이 다했던 그들의 사명, 죽음과 고통 속에 나타난 그들의 기쁨, 용기 그리고 침착함.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난 SMS를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게 주교님 메시지였다.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는 AYD 주제 문구와 꼭 맞는 좋은 말씀이었다.

그리고 8월 15일, 교황님과와의 첫 만남이 있던 날. 솔피성지는 '파파 프란치스코'를 외치는 AYD, KYD 참가자들의 목소리로 가득 메워졌다. 15일 교황님과 아시아 청년들의 첫 만남이 성사 되는 그날. 교황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아시아 청년들을 보며 어찌면 교황님의 방문은 그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교황님의 이번 한국 방문이 아시아 청년들을 만나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방문으로 아시아 청년뿐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듬어 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4박5일, 짧게도, 길게도 느껴졌던 AKYD가 막을 내렸다. 짧게는 반년, 길게는 2~3년 동안 제 6회 아시아 청년대회를 준비했던 모든 봉사자분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은 부족했던 순간들에도 기다려 주고 웃어 주시고 응원해 주었던 모든 AKYD 아시아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싶다.



봉사자 파견 미사 때 유홍식 주교님께서 “AYD가 끝나고 파김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은 모두 그 말씀을 따랐다. 모두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꼭 익었고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해 맛있는 파김치가 되어있다. 언제 한번은 봉사자들끼리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중에 한 봉사자가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준 봉사이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돈을 받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시작할 때 부푼 마음과 걱정을 한가득 안고 시작했지만 하느님께서 완성해 주신 이 잔치에서 모두가 하느님과 함께했던 좋았던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AYD가 아시아 청년들에게 순간의 울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황님의 말씀처럼 모든 청년들이 Wake up! 하길 바란다.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 특히 아시아의 청년들이 힘든 시련 안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빛나는 청춘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방한 후 바티칸 첫 일반일현 교황님 말씀

일시 _ 2014년 8월 20일 장소 _ 바오로 6세 강당, 바티칸

“기억, 희망, 그리고 증언”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사목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큰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아의 오래된 문화들과 복음의 영속적 새로움이 서로 만나는 한 나라 안에서, 순교자들의 증언 위에 세워지고 선교적 영에 의해 활동하는, 젊고 역동적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한국의 친애하는 형제 주교들과 대통령과 그 밖의 당국자들과 이번 방문을 위해 함께 일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목방문의 의미를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 ‘희망’ 그리고 ‘증언’입니다.

한국은 빠르고 주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탁월한 일꾼들로서 규율을 존중하고, 체제가 잘 잡혀 있는 노동자들이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힘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기억과 희망의 수호자입니다. 곧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며 그 안에서 어른들은 노인 세대로부터 받은 신앙의 횃불을 젊은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안에서 과거의 증

거자들에게 대한 기억은 현재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이번 방문의 두 가지 주요한 체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30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시성하신 순교성인들에 이은, 한국의 124위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식이고, 다른 하나는 제6차 아시아 청년 대회에서의 젊은이들과의 만남입니다.

‘젊은이’는 늘,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며, 순교자는 그 무언가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숨을 내어 줄 가치가 있는 그 어떤 분에 대해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교자가 증언하는 이러한 실재(實在)는 하느님 아버지의 증거자인 예수님 안에서 육(몸)의 형태를 취하신 하느님,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번 방한 기간에 젊은이들을 위해 마련된 두 차례의 만남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기쁨과 희망으로 채우셨고, 바로 이 기쁨과 희망을 그 젊은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다양한 나라들로 가져가 많은 선익(善益)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또한 신앙의 여명기에서나, 복음화 사업에서나, 평신도들이 지녔던 가장 주된 역할에 대한 기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1700년대 중반 이후 한 모임의 몇몇 젊은 한국인들에 의해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몇 가지 서적들에 매료되었고 그것들을 깊이 연구하며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북경으로 파견됐고, 그 후 이 평신도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작은 씨앗이, 초창기부터 이후 한 세기 가까이 모진 박해를 받으며, 1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과 더불어, 커다란 공동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신앙과 선교 노력, 그리고 평신도들의 순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를 모범으로 삼아, 모든 사회적 차별을 뛰어넘어 형제적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날의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너그럽게 나누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는 마태오 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신앙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고유한 문화들을 소멸시키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수세기와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 진리를 찾아 나서며,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걸음을 좌절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좋은 모든 것들을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발전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는 악마를 쳐부수시고 좌절시키십니다. 곧 사람과 사람, 백성과 백성 사이에 가라지를 심는 악마, 돈에 대한 우상숭배 때문에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는 악마, 젊은이들의 마음 안에 허무함이라는 독을 뿌리는 악마를 쳐부수시고 좌절시키십니다. 악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와 맞서 싸우셨고, 당신 사랑의 희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면, 순교자들처럼 우리 역시 그분의 승리를 생활화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전쟁과 분단의 결과로 고통받는, 한국 땅의 모든 자손들이 형제애와 화해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번 여행은 성모승천 대축일의 빛으로 환히 빛났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저 높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왕국에서, 하느님 백성이 가는 길을 동반해 주시고, 가장 힘겨운 발걸음들을 지탱해 주시며, 시련을 겪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희망의 지평을 계속 열어 두십니다. 성모님 모성애의 전구로, 주님께서 항상 한국 백성들에게 강복하시고 평화와 번영의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복음의 기쁨으로 항상 비옥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卍



제천, 원박 공소

제천에 있는 원박공소는 차가 다니는 도로보다 산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마을 쪽만 찾다가 初老의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직접 안내해 주신답니다. 산 쪽으로 인적이 끊겨 없어진 길을 더듬어 올라가니 빛 바랜 노란색의 벽을 하고 있는 공소가 보입니다. 종이 없어진 행한 종탑과 먼지가 쌓인 제대가 멈춘 시간을 말합니다. 종탑에 있던 종은 마을에 큰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울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공소가 문을 닫으면서 본당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여기를 만들고 여기서 기도했던 평신도들은 뭔가 더 좋은 세상을 희망했을 겁니다. 정치에서 이용되는 “진보”라는 단어가 아닌, 평민의 진보는 세상은 사람 살기에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만들어 주신 냉이 된장국과 묵은 김치로 차려진 점심은 평민으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卍

사진 · 글 : 김한열 우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blog.naver.com/holeinone88)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린다

이래수 그레고리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슬픔이 자비에 대한 바람과 신뢰와 합쳐져 아름다운 회상과 추모가 되기를 바라는 듯, 금빛 광선이 고요한 대기를 곧장 뚫고 들어와 애처로운 슬픔의 거리를 조용히 비추는 안산 단원고 근처에서 이래수 그레고리오 평협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장교로 예편하신 회장님은 잘 훈련 받고 완전 무장한 군인, 아니 전사를 연상케 하는 절제와 중용이 몸에 배어 있는 그야말로 하느님의 기사라는 인상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은 각자가 스스로 세우는 건축물과 같고, 회장님은 그 건축물의 설계와 방법을 아는 지혜를 지니셨으니 참으로 복되시다 생각해 봅니다.

대담·정리: 명백훈 편집위원, 사진: 오완수 편집위원

❶ 작년 5월 교구설정 50주년(희년)을 맞이한 수원교구 평협 회장으로 불림을 받아 1년을 조금 넘긴 재임기간에 평협을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재임기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 숙원사업, 또는 역점을 두고 펼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미 3년 전부터 교구설정 50주년 준비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 발족하여 진행 중이라, 이에 합류해 추진현황을 파악하기에도 여념이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솔직히 어리둥절했어요. 현재 교구에는 당면한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동시에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 계획이 진행되

고 있습니다. 2014년 교구장님이 교구미래 복음화를 위한 '50주년 교서'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를 위해 복음화 사업과 병행해서 외형적으로는 현 교구의 청소년국과 사회복음화국이 수원대리구와 안양대리구 지역으로 이전 확충하고, 현 교구청은 가톨릭센터로 시설조정을 하게 되는 등등, 교구의 장단기 비전 계획이 속속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대한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협은 24개 단체와 6개 대리구(수원, 성남, 안산, 안양, 용인, 평택 등) 평협 회장들의 기쁜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❷ 가톨릭 신앙과의 만남, 세례부터 신심단체 활동과

봉사단체활동, 조상님들과 가족들의 신앙이야기를 포함해 개인적 신앙 이야기를 폭 넓게 들려주십시오.

▲ 23년간 군복무를 하다가 1974년 공병장교(중령)로 예편했고, 1978년에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사정상 미루었던 영세를 받았습니다. 2년 후 사목회 재정분과 봉사를 시작하고, 한국천주교 200주년과 103위 시성식을 위해 방한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여의도 장엄미사를 집전하실 때 사목회 부회장으로 성체분배교육을 받고 장엄미사 행사요원으로 성체분배 봉사를 했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 교육을 받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본당 총회장(신림동:지금의 서원동 성당)으로 봉사하면서 자그마한 제조업(골판지 상자)을 하고 있을 때 대형 부도를 겪었습니다. 마침 성전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 '대 바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교우들이 지속적인 기도를 많이 해 주셨지요. 그때처럼 하느님께 매달려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을 수없이 외치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반월공단의 공장을 보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직무를 수행하다가 2009년 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창립준비 위원장으로 시작하여 현재에도 상임고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선종하신 모친(구 마리아)께서 저를 위해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신 덕분임을 깨닫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전쟁으로 피난생활 중 장호원 성당(감곡)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래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는 저 어르신이 늘 오시는데 어느 본당 분이시냐?"고 물으셨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른 아침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보면 이미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제 거들짜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❸ 순교성인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교회사 안에서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평신도, 즉 롤 모델로는 평소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 안중근 도마 의사가 생각납니다. 지금과 같이 자기 의사를 자유로이 표출할 수 없던 시기에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민족의 아픔을 보듬고 정의로운 신앙심을 발휘하신 성인이시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의사의 시복 추진이 보류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❹ 교회안에서 평신도의 위상은 어떠해야 할까요? 또 믿음살이와 세상살이 와중에서 그려 보는 이상적인 평신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제가 없이 평신도들이 씨앗을 뿌려 일구어냈지만 2세기가 지난 현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교세는 물론 사제 배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성당을 막론하고 있어야 할 곳은 봉사직이 모두 다 있어야 하는데, 신부님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관리라든가, 입교자들의 교리교육 같은 부분은 일부 평신도에게 소정의 교육을 해서 분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면 사목회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이 대부분 본당 신부님의 지시대로 따라가기만 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또 교리교사를 양성하여 책임을 주는 등,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분담 또는 이양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당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제가 지시하는 일에 따라가기만 하는 평신도상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음미해 보고, 역할분담이 되어 정착되면 더욱 보람을 느끼며 봉사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사랑이 신자들을 통하여 세상 곳곳에 확산되기를” 권고하신 대로 어려운 이웃에 손길이 닿도록 믿음살이와 세상살이의 간격을 좁혀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❶ 수원교구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양적인 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교구이기도 합니다. 교황님의 방한과 124위 시복식의 열기를 교회의 내적 성장을 위한 열기와 연결하기 위해 평협에서 해야 할 역할과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교구에는 천진암 성지를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14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이들 순교성지를 각 분당들이 수시로 순례함으로써 얻는 은총이 큼니다. 이번에 시복되시는 124위의 복자 반열에도 31위가 수원교구의 복자이시니 선조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교구민의 신앙생활에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124위 시복미사를 비롯하여 아시아 청년대회와 꽃동네 장애인들과의 만남, 명동 주교좌성당에서 있었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보여 주신 교황님의 행보에서 읽을 수 있는

한반도의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는 앞으로 깊이 통찰하고 음미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약자에게 무관심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100시간의 동행, 100년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교황님의 방한은 우리 교회 쇄신의 촉진제가 되지 않았나하고 생각해 봅니다.

❷ 이미 한국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중국, 아시아 등 해외 선교에서의 평협의 현황과 비전을 들려주십시오. 또 통일에 대비해 평협과 평신도 개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수원교구는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3천년기의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교구 시노두스(1997~2001)를 실시하여 ‘소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개선점이 제시되어 세상의 복음화와 공동체의 새로운 복음화를 열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어려운 나라에 복음 선교와 함께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형제애를 발휘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현재 다른 교구들도 실정에 맞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❸ 경제가 어려워 복지사업의 재원 확보가 점점 더 힘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나눔의 지혜가 더 필요한데, 평협의 나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은 여러 해



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의 재원 확보는 현 수준의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의 일정 비율은 본당과 대리구 및 교구 사회복지 분야 규정에 의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전이나 현재나 봉헌금 수준이 같다면 그동안의 물가와 화폐가치로 보아 교회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봉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에 있지 않습니까? 2천원을 봉헌하던 신자들은 3천원, 5천원 이상을 봉헌하던 신자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20%에서 30% 정도 상향 조정을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총회장들이 사목회와 지혜를 모아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개인적으로 몸담고 있는 가톨릭경제인회가 사회복지시설에 기금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좋은 뜻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원의 확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리구별 경제인회 지회를 결성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❹ 사목표어 내지 항상 염두에 두시는 성경구절, 좋아하시는 성가, 여가 취미 생활, 건강비법, 즐기시는 음식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시편 37장 5절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목소 해 주시리라”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생활하고 성체성사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성가는 236번 ‘사랑하올 어머니’와 445번 ‘예수님 따르기로’입니다. 여가취미 생활, 건강 비법 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절이 어려웠던 시절이니까요. 건강비법은 규칙적인 생활과 산책, 독서입니다. 즐기는 음식은 특별히 없고, 근래에는 소식을 하고 있으며 주량은 1잔 정도이고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저는 1남 5녀를 두었는데, 각자 결혼해서 가정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봉사는 소리 없이 십자가 지는 일

서울대교구 정순택 베드로 주교(54세)를 7월 31일 서울대교구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정 주교는 1961년 대구에서 출생해 1984년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에 편입하여 1992년 사제품을 받았다. 1986년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해 1992년 종신서원을 했다. 2009년부터 가르멜 수도회 로마 총본부 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최고 평의원으로 일하다가 2013년 12월 30일 주교로 임명되어 2014년 2월 5일 주교품을 받았다.

대담·정리: 배봉한 편집위원

봉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부모님의 모습부터 떠오릅니다. 아버님은 법대 교수셨습니다. 교수라면 근엄하고 완고하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아버님은 젊은이들과 잘 어울리는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봉사는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을 나누는 것, 기꺼이 나눠 주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아버님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해 주실 정도로 가정적이셨습니다.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실 때도 사병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경상도 남자로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부분이 좀 있으셨을 텐데,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신앙이 더욱 깊어지셨고, 결정적으로는 포콜라레 모임을 접하면서 사랑의 삶, 봉사의 삶, 겸양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도 중고등학생 시절 포콜라레를 접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봉사는 소리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

사제성소를 느끼면서 수도사제나 교구사제냐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솔에 입대하기로 영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학기는 먼저 교구로 들어와 신학교 생활을 하고, 수도생활은 군에 가서 더 생각해 보라고 다들 말씀하셔서 서울대 교구 신학생으로 2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휴학하고 입대를 기다리는 동안 허리를 다쳐 신체검사를 연기하고 집에 누워 있으면서 신심서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르멜 서적들을, 특별히 소화 데레사 성녀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가 찾고 있고 살고 싶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알고는 가르멜 수도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가르멜 수도회는 수녀님들처럼 완전 봉쇄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물러나 기도에 좀 더 치중하는 수도회라 가르멜을 택했습니다. 소화 데레

사 성녀가 평생을 봉쇄 가르멜 수도원 안에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선교의 후보 성녀가 되신 것처럼, 할 일이 많은 세상에 하느님께 저의 몫을 내어 드리고, 저는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어떤 도구로든 활용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르멜 수도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생활 안에서는 봉사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이 있는 듯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 나서지 않고 일이 미루어져 진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리 없이 '저라도 하겠다.'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십자가를 소리 없이 진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뜻이니 무조건 순명해야

주교 직무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수도회의 로마 총본부 일을 맡고 있어 로마에 살 때였습니다. 인류복음화성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차관이신 사비오 혼 대주교님이 종이를 내밀며 주교직을 수락하는 서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따로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좋고 싫고를 떠나 저의 뜻밖의 일은 하느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순명하는 차원에서 성모님께서 하셨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에 거절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니까 순명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어떤 선배 주교님이, 주교가 되면 개인 생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 놓는다고 생각해야 편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6개월 동안, 교황님 향한 준비라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퇴근해서도 잠자리에 눕기까지는 계속 업

무와 관련된 일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봉사라는 낱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여건들, 시간이든 체력이든 금전이든, - 수도원에서는 한 달에 용돈 5만 원을 받지만 여기서는 월급 형태로 생활비를 줍니다. -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는 교회의 미래가 아닌 현재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교회'라는 저의 주교직 모토와 연결해 보자면, 저의 모든 존재는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으로는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을 맡고 있고, 기능으로는 수도회와 청소년을 맡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교님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없는데, 미사라든지 행사 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함께하면 힘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지만 격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분에 넘치는 보람을 느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탈하시고 겸손하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분으로 다가오니까,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교황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교황님께서 가리켜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번 청년대회만 해도 젊은이들과 함께 교황님이 강조하시는 바,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할 바, 이런 방향과 오늘의 모습을 토론도 하고 함께 모색도 하고, 무언가 젊은이들 안에 새로운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새로운 것을 열어주고, 또 교회로 불러들여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설계하도록 장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교황님이 강조하시듯 젊은이들은 교회의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그런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젊은이들과 좀 더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선도자

제가 교구로 와서 느끼는 것은 신부님들이 밖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양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주도적으로 양들을 이끄시는 것이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신자들이 피동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목자는 선도자, 지도자라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지만, 지휘하고 명령하는 선도자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선도자로서, 주인공인 양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양면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교회가 연구하고 모색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더 겸양하게 사랑을 나누는 차원이 봉사의 더 진전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사한다, 도와준다고보다 스스로 낮아져서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김수

환 추기경님 다큐멘터리를 보니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고백하시던데, 어렵긴 하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지향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느님 사랑을 만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미사는 꾸준히 나갔지만 본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공 차면서 놀기 바빴고, 고등학교 때는 입시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특별한 신앙체험을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곱게 자란 것 같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아버님이 보증을 두 번 서셨다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집에 차압 딱지가 붙고 완전히 길거리로 나왔게 되었습니다. 세 가구가 야외 재래식 화장실 하나를 공동으로 쓰는 사글세방 두 칸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 담배를 배웠는데, 용돈이 없어 아버님 재떨이에서 꾀초를 주워 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대구에서 열린 포콜라레 마리아폴리 모임에서였다고 한다. 편집자 주.) 그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것이 근본적으로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때도 다르고 체험하는 모습도 다르겠지만 **‘하느님 사랑을 일상에서 느껴야 한다. 하느님 사랑을 느끼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 사랑을 만나도록 눈을 떠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 사랑을 만나면 인생의 설계와 목표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하느님 사랑에 눈을 뜨면 삶이 바뀝니다. 

그곳은 과연 어디였을까?

김기혁 요한 레오나르도
한국순교자현양회 홍보부과장

시복식 날, 교황님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신청된 신자들 20만 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100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에 운집하였습니다. 질서와 안전을 위하여 4000명의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순교자현양회 일원이 되어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일생에 다시는 없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봉사였습니다.

196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첫영성체반’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어른들이 슬렁이였습니다.

“옛날 신자들 많이 죽었던 강가에 성당을 다 지었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몇 몇 분들이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늘 문득문득 궁금하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

세월이 흘러 대학을 가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절두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가 언덕 위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머릿돌에 1967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고 싶어 하던 곳이 절두산성당이었던 것을. 그리고 보면 우연하게도 성지의 존재나 순례 느낌을 조금 일찍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간이 나는 대로 전국 성지를 구석구석 다닙니다. 지방 출장이 잦은 터라, 일을 마치고 올라오면서 생각해 두었던 성지 한두 군데 들리곤 합니다. 전에는 그 지역 유적이나 맛집을 가곤 하였는데, 십 수 년 전쯤(1995년) 충청도 보령 어느 바닷가로 출장을 다녀온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닷가 가는 쪽으로 조그만 팻말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순교지 입구.’

길을 따라 들어섰습니다. 무너진 오천성이 보이고 포구를 지나 해안 도로로 들어서니 울퉁불퉁한 비포장 길이 나타났습니다. 뒤통뒤통하며 조심스레 몇 분을 더 운전을 하니, 도로변 허허해안에 언제 세웠는지 모를 비석이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

‘순교복자비.’

그곳이 충남 보령의 ‘갈매꽃 순교성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뻬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운데에서 노인이 설명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의 할아버지의 말씀. 당신 소시적 그분들 끌려가는 걸 보았노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치명이 아주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흐릿하던 우리 교회사 일들

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전국 성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방출장을 갔다 일을 마치고 나면, 올라오는 길은 자유시간입니다. 올라올 때는 준비해간 성지 주소를 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곤 합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순례이지만,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곳을 다녀보니 성지마다 각각의 이야기가 다름과 같음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알아야 한다는 깨달았습니다. 성지도 일련의 체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사에만 나오고 위치는 알려지지 않은 곳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어 있는 흔적들. 한 곳 한 곳 새로운 곳을 발견하면서, 찾아가는 재미가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러자 교회사 관련 책을 읽는 습관도 들고, 읽으면서 또 다른 각도로 찾아가려는 기대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순교자현양회에서 성지를 정기적으로 순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례 봉사 대열에 말석이라도 겨우 끼어들었습니다. 순교자현양회 성지 안내 봉사회에는 정말 신심도 좋고, 교회사 지식도 대단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들어와서 안 일이지만, 사학을 전공한 분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어서, 시쳇말로 '어디 명함 한 번 잘못 내밀었다가는 혼쭐나는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례봉사를 하면서부터 의혀야 할 것도 많고 배워둘 점들도 많았습니다. 한두 해로는 능숙하게 되지 못하는 전문 분야였습니다. 흔한 얘기처럼 '조금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국지방순례.

아침에 사당역 주차장에서 8시에 순례차가 떠납니다. 버스가 오기 한참 전 새벽부터 순례객들이 나와서 줄을 섭니다. 열심히 신자들입니다. 봉사자는 인원 확인과 유인물 배부를 하고 안전벨트 매기를 당부하고 출발합니다. 차중전례(목주기도, 천주교회사, 오늘의 성지순례 개요 설명)를 마치면 보통은 중간휴게소에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에 봉사자는 성지에서의 미사 준비와 인원, 식사 관련 일을 전화로 확인합니다. 성지에 도착하면 미사를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성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은 점심식사. 식사는 순례 중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순례까지 와서 무슨 먹는 거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순례의 반은 먹는 것'이란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그날의 순례를 돌아보며 감동을 나누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패턴은 이렇듯 비슷합니다.

요즘의 순례는 그 모습이 조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5~6년 전에는 순례객의 수도 적었지만, 성지에서 미사와 목주기도를 바치면 대부분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구체적입니다. 우선 순례객의 숫자가 두세 배 늘었고, 지적 호기심이 보통 아니고, 걷고 오르고 찾기에 열성을 보입니다. 알려진 성지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적지에도



깊은 관심을 갖는데, 스토리텔링 등 사회현상의 영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성당이나 표석이나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 '성지 같다' 하였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없는 들과 벌판에서도 당시의 이야기와 신앙선조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도 감동합니다.

한번은 전라도의 피난지. 교우촌이면서 초기 본당 터인 모악산자락 배재성당지(전북 완주)를 갔습니다. 그곳은 가슴까지 오는 풀숲을 헤치며 40~50분을 올라가야 하는 산길이었습니다. 힘들게 올라가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당은 흔적도 없고 푼말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례자들은 감동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성가를 부르며 그곳에서 모여 미사를 드리던 옛 선조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내려오면서도 마치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옛 선조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느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듯 순례자들은 성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나는 길 표석 하나 성지의 시설물 하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합니다. 간혹 봉사자가 모르면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살짝 따지기도 할 정도로 편견도 듣습니다. 봉사자의 소양이 점점 더 향상되어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교회사는 물론이고 국사와 지리도 알아야 합니다.

지방에 따로 가는 터라 미사 전례의 해설 독서

는 물론 공소예절도 주관할 줄 알아야 하고, 각종 기도도 능숙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잡상식들. 이를테면 사진촬영, 응급처치, 보험 상식 등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복식 날이었습니다.

전날 최종 교육이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다시 그 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어떤 봉사자들은 찜질방에서, 심야영화를 보면서, 24시 커피숍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일반신자들이 5시부터 7시까지 입장하기에 자리배정과 물품정리 등을 부지런히 마치니, 먼동이 트면서 일반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바 일 파파!'

교황님을 연호하며 정말 뜨겁게 맞았습니다. 봉사자들은 질서유지를 하느라 신자들을 바라보며 동태를 살피야 했으므로 교황님을 등지게 섰습니다. 교황님 차량이 점점 다가오자 신자들이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열기가 그들을 도로 가까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막은 봉사자들은 힘들게 버티고 교황님과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경을 쓰느라 교황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함께하고 있고 교황님을 위하고 있음에 마냥 좋았습니다.

시복식이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순교자현양회에 소속되어 시복식 한가운데에서 봉사하게 해 주셨음에 기뻛고, 작은 일이지만 신앙 후손으로서 작은 부분 한편을 맡아 도리를 다한 것 같아 마음에 뿌듯하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소리 없이

김태갑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구대학교구 만촌1동성당 총회장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외치는 목소리가 태풍이 올 때 길거리에 떨어진 간판이 뒹굴듯이 이리저리 위협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난장판 속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셔서 천주교신자건 아니건 그동안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에 큰 위로를 주시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큰 어른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는 힘든 여정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받들고 섬긴다.’는 뜻을 가진 봉사(奉仕)는 진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같이 살아오신, 선의 경지에 오른 소수의 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지선지고(地仙至高)의 행위인가? 하고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3년 전 9월 말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진료를 시작하려는데 웬 노인이 등산 모자를 쓰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떻게 방문하셨는지 묻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뒤로하고는 제 방문을 밀고 들어서는 노인이 있었고, 깜짝 놀라서 일어서는데 한 달 전 부임한 새 주임신부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불편하시느냐고 문자 환자의자에 앉아서 눈을 잠시 건성으로 보여 준 뒤 다짜고짜 총회장을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저는 신앙심도 부족하고, 재력도 없고, 시간도 내기 어려워 못한다고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모임에

서 여론조사도 해 보았고, 교적으로 가족의 신앙생활도 보고 왔다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응답을 드리겠다는 저의 대답에 이들의 말미를 주고는 진료실을 떠나셨습니다.

청소년 위원장을 맡고는 있었지만 신부님 오신 뒤에는 숨어 다니면서 인사도 옳게 못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니 꼭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칠순의 노인이 직접 힘들게 병원까지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거절하기 어려워 시작한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맡은 본당 총회장을 3년이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신부님의 “돈으로, 인물로, 활동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말씀을 모토로 총회장을 하자고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한편으론 돈도 인물도 신앙도 부족한 사람이 본당 공동체에 옳게 봉사할 수 있을까?

혹시 공동체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먼저 본당 내 회의와 행사에 빠지지 않으려고 진료시간부터 줄였고, 한창 물이 오르던 골프 라운딩은 동반자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면서 휴식기에 접어들었고 골프스윙도 스코어도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가능한 평일 저녁미사 참석을 하고, 주일이면 주보나 누기부터 시작했고, 어느덧 일상생활이 병원 진료 외에는 성당 내 모임 위주로 스케줄이 짜였고, 외부 모임은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총회장으로 첫 본당 행사가 주임신부님 사제 서품 40주년 축하연이었고, 그동안 3년이 지나 지난 5월에는 대주교님을 모시고 본당 설립 12주년 기념 및 주임신부님 은퇴기념 본당음악회를 본당 형제자매님들의 공감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면 본당 총회장이라고 인사하고는 덧붙임 말로 성당 내 신자들 중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대표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자기소개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동안 3년간은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은 타성에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본당에는 신앙심이 깊으면서도 조용하게 봉사하시는 아름답게 늙으신 형제분들이 여러분 계셨고 그중에서도 우체국장으로 퇴직한 아브라함 형제님의 삶은 너무도 보기가 좋습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талан트를 정말로 기꺼이 하느님께 바치는 것 같아서 정말로 행복해 보입니다. 본당 행사 때면 아름다운 백발에 카메라를 둘러매고 정성껏 셔터를 눌러서 본당 홈페이지를 풍성하게 해 주고,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은 사비를 들여서 현상하여 개개인에게 전달해 주고, 본당에서 경비를 지원하려고 하자 본인이 원해서 한다면서 웃음으로 사양하시고, 집에서 잘 키운 아름다운 화분은 제대 장식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성당 구석구석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7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도 저녁 해거름이면 성모동산 화단에 물을 주려고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어깁없이 성당에 나타나십니다. 나이를 떠난 천진난만한 웃음은 항상 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본당 형제자매님들이 돌아가시면 위령회 부회장으로 누구보다 먼저 상가로 뛰어가고 장지에서의 뒷정리까지 하고는 돌아오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난과 소박함 그리고 겸손의 큰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평신도 봉사자들에게도 ‘진정한 봉사’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변화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과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회장이랍시고 단 순히 여기저기 얼굴 내밀고 건성으로 수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조그만 돈봉투나 내밀고는 할 일을 다한 듯 자족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끼리끼리 모여서 취미 생활하듯이 거들먹거리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적은 없는지? 교구 내 본당들에 사장님 같은 총회장들이 많이 보인다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닌지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거철이 되면 어깁없이 나타나는 정치인들이나, 회사를 운영하듯이 신앙생활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봉사자가 아니라 앞의 아브라함 형제님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소리 없는 봉사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국화향기 그윽한 10월이면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하였고, 올 가을에도 세 번째 바자회를 열 예정입니다. 바자회 때면 많은 신자들이 주야로 봉사해 원가 수준의 음식 나누기를 하고 남는 수익금은 본당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올해에는 진정으로 나눔의 의미를 살려 이익금을 본당 외 다른 필요한 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까 합니다. 부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참된 봉사’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박희성 토마스
시그니스 서울 회장

1986년 여름 어느 날 저녁, 모처럼 일찍 퇴근해 아내와 함께 애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얼마쯤 걷다가 덥고 힘들어서 조금 쉬자고 큰 나무 밑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수녀님이 “애기가 참 예쁘구나.” 하시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때서야 여기가 어디지 하고 둘러보니 그곳이 바로 부천에 있는 ‘역곡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비자 교리공부가 있는 날이었고, 수녀님은 우리 부부가 교리공부를 하고 있는 예비자인 줄 아셨던 겁니다.

그 수녀님의 권유로 그날부터 교리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세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이 “다음 수요일 저녁에 성당에 좀 나오지.” 하시는데 겁이 났습니다. 대부분이 말씀이니 거역하지 못하고 나갔다가 그날로 바로 레지오마리아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닷없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갑자기 신자가 되고 레지오마리아 단원이 되었습니다.

레지오 회합에서 단원들이 묵주기도를 35단씩 바쳤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35단을 채우기(?) 위해 틈날 때마다 묵주기도를 바쳤지만 일주일에 35단 바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몇 주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묵주 한 바퀴를 다 돌리면 5단인데 나는 그게 1단인 줄 알

았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자생활, 대부분이 하라는 대로 직장 교우회 총무도 맡고 가톨릭방 송인협회(UNDA : SIGNIS의 전신) 총무도 맡고 바쁘지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께부터 회사에서 판촉(영업)업무를 맡게 되면서 저녁 술자리가 많아지고 주일에도 약속이 많아지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주일 미사에만 참여하는 소극적 신자가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저에게 시그니스서울 회장을 맡아 보라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10년 이상 열심히 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마음에 걸리고 바쁜 회사업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교회활동도 외형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나의 신앙의 깊이는 얼마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또한 소명이 아니겠는가?’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그니스(SIGNIS)는 세계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 : World Catholic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의 정관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 라디오, 텔레비전, 광고, 영화, 영상, 인터넷, 애

니메이션, 정보통신 등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복음의 정신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의 시그니스 조직은 대부분 사제와 수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시그니스는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임원들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의와 활동, 봉사 등으로 수고가 많은데도 회비까지 부담해 주는 임원과 회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그니스는 회원 상호 간의 친교와 영적 성숙을 위한 활동, 가톨릭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한 신앙교육 및 복음 실천을 위한 활동, 천주교 발전을 위한 대외언론활동, 각종 미디어 종사자들의 가톨릭 입교활동, 교구 마스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주요 사업지원, 시그니스 Korea와 각 교구 시그니스와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회원들이 함께하는 연 4회 합동미사, 성지순례, 피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족 조사가 생겼을 경우에는 연도와 근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청소년을 초청하여 방송사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정신을 구현하는 영상물로 1편

“의욕은 있으나 아직 여건이 따라 주지 않는 일도 있고 저의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성호경)과 2편(묵주기도)에 이어 3편(고백성사)을 9월에 제작 완료했습니다. 9월 11일에는 MBC 교우회 주관으로 합동미사를 염수정 추기경님 집전으로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로마에서 개최된 시그니스 월드 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였고, 시그니스 아시아에는 임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성서공부반과 예비자를 위한 교리공부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원들의 미디어 이해를 돕고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스터디그룹과 포럼을 운영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의욕은 있으나 아직 여건이 따라 주지 않는 일도 있고 저의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좋은 일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는 일이며 무엇보다 하느님께 큰 영예와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생명운동의 기초

회칙

「생명의 복음」I



들어가며

회칙 「생명의 복음」은 ‘주교들에게 사제들과 부제들에게, 남녀 수도자들과 신자들에게, 선의의 모든 이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성하의 회칙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에 관하여’라는 부제로 1995년 발표되었다. 이 회칙의 목적은 “인간 생명에 대한 전례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위협들과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복음,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 생명이 갖는 위대함과 고귀함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회칙 「생명의 복음」은 강력한 교도권으로 제시되는 일종의 가톨릭교회 생명윤리의 교과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생명윤리를 체계적이고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현대사회를 향한 교회의 긴박한 호소를 담고 있다.

「생명의 복음」은 서론과 본론의 4개의 장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인간 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 제2장은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제3장은 ‘하느님의 신성한 법에 관하여’ 그리고 제4장은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회칙 「생명의 복음」을 제4장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에 나타난 가톨릭교회 생명운동 방향과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두 번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생명의 복음 1장

‘인간 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

「생명의 복음」 제1장은 현대사회에 전례 없이 자행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죽음의 문화로 규정지며 그 원인과 죄의 뿌리를 살핀다. 즉 현대사회에 실재하는 구조적 죄에 대해서 죽음의 문화라는 형태를 취하는 문화의 출현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죽음의 문화는 진리나 객관적인 선과는 거리가 먼 타인과의 유대 및 연대 없이 개인주의적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는 왜곡된 자유개념에 그 원인을 둔다고 밝힌다.

또한 현대 사회 안에서 죽음의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게 그리고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우리 스스로가 죽음의 문화에 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칙은 이처럼 강력한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는 생명의 문화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의 문화를 만들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강조한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어 놓는다.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신명 30,15,19)

생명의 복음 2장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제2장은 선물로 주어진 생명을 주제로 하여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교 메시지이다. ‘생명의 복음’의 핵심은 ‘위대한 인간 생명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고귀하지만 연약하고, 죽음과 고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상의 인간 생명은 그 자체 안에 창조주께서 심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과 애정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인간 생명의 위대한 가치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 생명을 취하시고 그것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으니 그 인간 생명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또한 “인간은 비록 흠으로 빚어졌지만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언하는 존재이고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표징이며 그분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어서 이레네오 성인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인간 생명의 선함을 드러낸다. “하느님의 영광은 바로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와 창조주를 결합시켜 주는 긴밀한 유대에 근거한 고결한 품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영광이 인간 안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3장

‘하느님의 신성한 법에 관하여’

제3장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신성한 법에 관해서 말한다. 회칙 제3장은 생명의 복음에 비추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며, 오늘날 전례 없이 생명이

“하느님의 영광은 바로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와 창조주를 결합시켜 주는 긴밀한 유대에 근거한 고결한 품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영광이 인간 안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 계명을 적용시키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계약의 핵심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절대적이고 항구한 가치를 재천명하고자 한다. 교황은 이 계명이 제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과 봉사, 사랑의 길을 따르도록 초대하는 선물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덕적 명령의 부정문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외적 한계를 가리키지만, 그러한 금지명령은, 함축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 곧 인간을 위한 투신을 권고한다.

회칙 「생명의 복음」은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와 사형제도에 관한 일부 전통적인 도덕적 구별을 상기시킨 다음 - 오늘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형제도의 적용이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윤리적 진리들을 제시하고 있다.

회칙 「생명의 복음」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언제나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선언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낙태와 안락사에도 적용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신에서부터 출생에 이르는 동안 생명의 시작 단계에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으로 정의되는 인공 임신중절, 곧 낙태에 관하여 회칙은 “직접적인 낙태, 즉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는, 무고한 인간 존재를 고의로 죽이는 것이므로 항상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구성한다.”고 선언한다.

회칙은 낙태와 관련한 교회법의 규정까지도 언급하면서 낙태는 언제나 가장 심각한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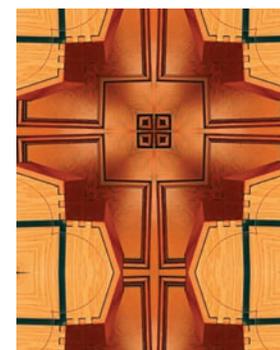
지영현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최창현 요한 - 덕망 높은 총회장, 성서의 첫 번역자

‘조용하고 슬기로웠고 견식이 넓고 마음이 용감하고 확고한 사람’
‘천주의 침례 날에 비단 장막을 치고 천주상을 모셔 놓고 천주의 은혜를 생각했다.’

우리나라에 복음 선포의 선구자이신 광암 이벽 선생께서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중인 계급 친구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암의 활기차고 박력에 넘치는 기쁜 소식을 듣고 즉시 응답하였는데 그 가운데 최창현(요한 1759-1801)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사영은 그의 백서에서 한국 초대교회 최고 평신도로 정약종을 한없이 칭찬하여 소개하면서도 “그의 덕망은 관천에 미치지 못했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최창현의 덕망은 모든 이가 우려를 만하였습니다. 황사영은 그의 백서 32행과 33행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총회장 최요한 창현은 중인입니다. 을묘년에 순교한 최미지아(최인길 회장을 말함)의 족질인데 그의 집안에는 진실한 교훈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자 남보다 먼저 입교하여 평화롭게 몸을 삼가고 공명하게 힘쓰기를 20년 동안 하루같이 하였습니다. 그는 보기에 순수하고 말이 간단하면서도 옳았으며, 누가 혹 의혹이 생기거나 환난을 당하여 몹시 근심스럽고 답답할 때에는 그의 얼굴만 한 번 보아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이 그다지 큰일도 아니요, 어려운 일도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다시 몇 마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시원하게 활짝 열렸으며 소리의 강론은 자세하고 분명하여 깊은 맛이 있으므로, 비록 예사로 말하고 듣기 좋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즐겨 듣고 싫증이 나지 않아 사람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므로, 듣는 사람에게 신령스러운 이익이 아주 많았습니

최창현은 한양 초전골의 중인 출신으로 역관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가 살던 초전골에는 물맛이 좋은 큰 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우물이 있는 동리에서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을 지닌 관천이라는 호로 신자들이 불렀습니다.

그는 또 기해박해 때의 순교성인 최창흡(베드로)의 이복형이며, 1795년 을묘박해 순교자 최인길(마티아)과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 최필공(토마스)의 인척이기도 합니다. 그는 비록 중인 출신이지만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쓰며 견문을 넓혔고, 조용한 성품에 매우 슬기로웠으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그는 광암의 권고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던 해인 1784년 겨울에 입교한 후 한결같은 신앙 생활로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총회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지목하여 말할 교우가 없으니 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천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하여 전날에 천주님을 배반하였던 것을 통절히 뉘우치면서 죽고자 할 따름입니다. 지목하여 말할 교우가 없습니다.”

(추안금국안 1801년 2월 13일 p66 최창현)

다. 그의 천명에 순종하고 남에게 겸손함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왔으며 남보다 뛰어나게 다른 점도 없었고 또한 책망 받을 행동도 없었습니다. 덕망이 교우들 가운데 제일 높았으므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이 입정동에 있었으므로 호를 관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조화진(배교한 밀고자)이 충청도를 염탐하여 최요한이 교인의 영수임을 알았으나 그의 이름과 있는 곳을 몰라 체포하지 못했는데, 이에 이르러 최요한은 박해가 크게 벌어질 것을 알고 교우의 집에 피해 있다가 신유년(1801년) 정월 초닷새날 몸이 불편하여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조리하는데, 초아흐렛날 밤중에 김여삼(밀고자)이 포도대장을 인도하여 와서는 덮쳐 체포하여 포청에 가두었습니다. 십여 일 후에 치도곤 열세 대를 맞았는데, 매를 맞을 때는 기절하여 땅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 같더니, 매질이 끝나고 관리가 죄목을 세자 별떡 일어나서 성교의 십계명을 강론하여 밝혔습니다. 관리가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여 공경한다면 어찌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잘 때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맛볼 수가 없지 아니하오? 하물며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소?” 하고 되물으니, 관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를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뒤에 아무런 소식을 못 듣다가, 정 아우구스티노(약종)와 같은 날에 참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3세였습니다.

백서에 적혀 있듯이 존경 받던 총회장 최창현 요한은 이승훈(베드로), 최필공(토마스), 홍교만(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홍낙민(루카), 정약중(아우구스티노)과 함께 1801년 4월 8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784년 가을에 단 한 분의 선교사 없이 이벽, 이승훈, 권일신 등을 중심으로 교단은 조직이 되었으나, 그 교회는 성직자도 없고 미사성제도 거행하지 못하는 목자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발적 수용에 의해 얻은 열의에 찬 천주신앙의 실천으로 신품성사에 대한 교리를 미처 알지 못하고 평신도가 스스로 사제의 역할을 하는 임시 준 성직자단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최창현도 그 신앙심과 탁월한 인품이 높이 평가되어 신부로 선임되어 그 임시 성직자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못된 것임을 북경의 주교로부터 알게 되자 평신도에 의한 임시 성직자단을 해체하고 사제영입운동을 시작합니다.

1794년 초에 주문모 신부님 입국이 이루어지자 신부님의 사목활동을 충직하게 도왔습니다. 그는 주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례하고 성사를 받았으며, 언제나 미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교리를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헌신했습니다. 주문모 신부는 그의 덕망이 높고 그를 사랑하여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를 총회장에 임명하여 신도들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는 비록 중인이었지만 양반들도 그의 지도

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하고 슬기로웠고 견식이 넓고 마음이 용감하고 확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던 그는 “당시의 교우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던 총회장이었다.”고 달레 신부는 그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적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으로서 복음서를 맨 처음 읽은 사람은 문헌상으로 광암 이벽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한글로 처음 번역한 사람은 최창현(요한)입니다. 그는 한자로 된 복음서 성경직해와 성경광익을 발췌해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성경직해’를 내렸습니다.

한문본 ‘성경직해’와 ‘성경광익’을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 위 두 권의 책 중에서 당시 한국의 교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택해서 한 권으로 편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본 ‘성경직해’를 한때 ‘성경 광익 직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글본 성경직해에는 86개에 달하는 연중주일과 축일의 복음 구절이 한글로 번역돼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직해는 성서의 전체적인 번역은 아닙니다. 한자로 된 발췌본인 중국의 성경직해와 성경광익처럼 주일과 축일에 해당하는 성서만 번역되어 실려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한글본 성경직해에 실려 있는 복음서의 분량은 4복음서 전체의 구절 총 3,709절 중 30.68%에 해당하는 1,138절입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이 한글본 성경직해를 통해 우리말 성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달레 신부는 그의 ‘한국천주교회사’에서 “관천이란 호로 더 잘 알려진 창현이라고 불리는 최요한도 역관 집안의 아들로서 천주교에 나온 후로 모든 교회 서적들을 자기 손으로 베끼고, 그것으로 크게 봉사하였다. 그의 책 베끼는 솜씨가 어떻게나 평판이 높았던지 책을 가지고 싶은 교우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를 찾아갈 정도였다.

‘주일과 축일 성경의 해석’이라는 한문책을 조선말로 번역한 사람이 그였다.”고 전한다.

최창현(요한)이 번역한 성경 직해는 손으로 옮겨 적은 필사본으로 초창기 일반신자 사이에 널리 읽혔습니다. 그가 번역한 필사본이 널리 읽혀졌다는 사실은 1801년 박해 때 이름 없는 한 여교우의 집에서 압수한 천주교 서적 중에 이 책이 나오고 있음을 ‘사학징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4복음서의 체계적 번역서를 갖게 된 것은 한기근(바오로) 신부에 의해 번역되어 1910년에 출간된 ‘사사성경’입니다. 그러나 총회장이며 순교복자인 최창현(요한)에 의해 번역된 성경직해는 사사성경 출간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널리 읽혔습니다.

1801년의 이 추안금국안에는 최창현이 최초의 한국교단의 모습에 대하여 “천주의 침례 날에 비단 장막을 치고 천주상을 모셔 놓고 천주의 은혜를 생각했다.”고 공술하였습니다

혹독한 형벌 속에 목숨이 경각에 이른 찰라에도 그의 신앙은 요지부동으로 그가 평소에 철석같이 굳게 다져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최창현 요한은 총회장답게 “자신은 천주교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지도적 교인답게 야수와 같은 형리들 앞에 천주의 신앙을 증거하여 영생의 길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광으로 그는 동료들과 함께 2014년 8월 16일 그 옛날 형고의 피가 어렸던 지금의 광화문 앞에서 교황 프란치스코의 집전으로 백만 군중과 함께 민족과 역사 앞에 복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김길수 사도요한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김태영 바오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회장

청빈의 삶을 살고자 선택하신 가난한 자의 아버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의 해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물질적 도움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교황님을 직접 뵈 환희와 기쁨 그리고 벽찬 기운이 2016년에 맞이하는 빈첸시오 한국 도입 60주년의 새로운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빈첸시오 활동은 기본입니다. 말로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청원의 기도를 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빵을 주고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 받고 어려운 자에게 찾아가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빈첸시오라고 생각합니다.

빈첸시오의 소명은 순명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해진 길을 가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순명을 거스르겠습니까? 그저 그분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바

티칸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온 세계가 가톨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풍이 나타나는 것은 교황님께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빈첸시오 활동이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통한 애덕 실천과 복음 전파가 우선이지만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활동회원의 증가와 협의회 설립, 그리고 빈첸시오로서 갖추



어야 할 기본 교육 강화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구별 교육과 교육을 담당할 양성자 발굴, 미래의 일꾼 청년들을 위한 분기별 워크숍을 꼭 실행할 계획입니다. 빈첸시오 초창기에는 해외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립(오자남 마을)하여 어려운 이들에게 무상으로 주었고 국수공장을 운영하여 굶주리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받은 것을 되돌려 줄 때입니다.

방글라데시 디아프로 교구에 양업 마을을 조성하여 집을 지어 주었고, 전 회원의 성금으로 몽골에 3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청년 해외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 어운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기쁨 중 하나는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님께서 교포사목 활동 중 은인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를 주시어 무료 급식소를 건립하여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없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20여 년 전 식사를 하러 오셨

다가 지금까지도 매일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빈첸시오안으로서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겸손, 감사와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설 때 예수님을 뵈는 것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짐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빈첸시오안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소유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빈첸시오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어렵고 소외된 이들이 빈첸시오의 손길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항상 낮은 곳에 임하시는 교황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의 순교영성

“공경하올 하느님의 종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을 복자라 부르고, 5월 29일에 그분들의 축일을 거행하도록 허락한다.”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엄한 선언에 신자들이 일제히 환호하였다.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 1)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광화문(光化門) 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식이 거행되었다. 기해박해와 병오박해 때 순교한 79위가 1925년 로마에서 복자로 선포되었고, 이어 병인박해 때 순교한 24위가 1968년 로마에서 복자품에 오른 이후 세 번째 맞는 시복식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 광경에 뜬금없이 주어사의 풍경이 겹쳐졌다. 얼마 전에 다녀온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하품리 산106번지에 위치한 주어사 입구에는 ‘주어리’라 쓰인 표지석이 우뚝 섰다. 임도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이 풍성하여 물고기가 힘차게 달릴 만하니 주어사(走魚寺)라는 명칭이 알맞았다. 마치 등용문에 오르는 잉어처럼 부지런히 학문을 갈고 닦던 젊은 유

학자들의 패기가 서릴 만한 곳이었다. 순간 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에 인용된 『시경(詩經)』의 ‘연못에는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하늘에는 솔개가 난다’는 어약연비(魚躍鳶飛) 구절을 가슴에 품었을 선비들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 해발 400m 지점에 도달하자 사찰 터는 오간 데 없고, 몇 십 년 전에 숯가마로 쓰였다는 둥근 석축만 남아있었다. 그 상단 중앙에 ‘주어사, 천주교 강학회 장소’라 쓰인 자그마한 철판이 보였다. 바로 이곳에서 1779년(정조 3년) 권철신·정약전·김원성·권상학·이충익·이윤하 등의 남인 성호학과 학자들이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강학하였던 것이다.

초기 한국천주교회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2티모 3,12)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신앙선조들은 순교야말로 영광의 화관이라 여기며 용감하게 천주를 증명하였다. 투옥과

고문과 처형으로 이어지는 참혹한 수난을 온 몸으로 견뎠고, 아울러 재산과 지위를 보장해준다는 달콤한 회유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오죽하면 굶주림에 감옥 안에 깔아놓은 가마니를 뜯어 먹어 형체조차 남지 않았다고 하였을까. ‘사람들이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마태 5,11-12)는 말씀을 가슴에 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전의 103위에 대한 시복과 시성은 파리의 방전교회가 주도한 경사였다. 그러므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모방 신부가 입국한 이후의 순교자 행적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의 124위 시복식은 전적으로 한국천주교회가 주도하여 성사되었다. 따라서 기해박해 이전의 초기 순교자 86위가 대거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 땅에서 최초로 미사를 올린 주문모 야고보 신부, 성 정하상·성녀 정정혜와 복자 정철상의 아버지이자 성녀 유조이의 남편이며 첫 한글교리서인 <주교요지>를 편찬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첫 여회장인 강완숙 골롬바가 1801년에 순교하여 이번에 복자품에 올랐다. 또한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말로 잘 알려진 백정황일광 시문도 1802년에 순교하여 이번에 복자품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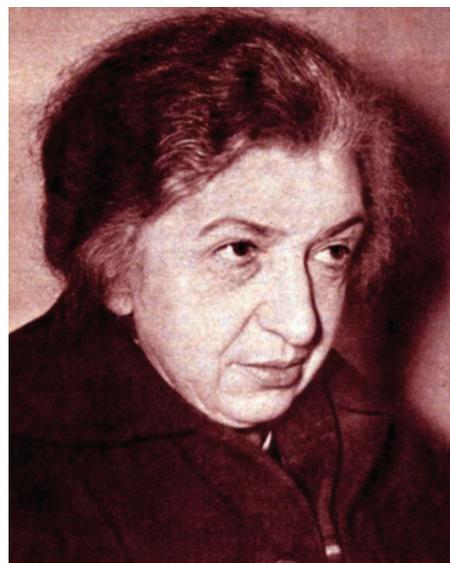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는 평신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교사 없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평신도들의 손으로 세워진 교회, 남녀노소·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천주를 증명하기 위해 뿌린 피로 다져진 교회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선조들의 순교영성과 복

음적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목숨을 바치는 적색순교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의로운 삶으로써 하느님을 증명하는 백색순교를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의인 열 명만 있었어도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소돔이야기(창세기 18장)가 먼 옛날 이민족에 국한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율곡은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재물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득사의(見得思義)’를 주장하였다. 오늘과 같은 황금만능주의·재물지상주의가 만연하는 사회에 딱 들어맞는 지적이다. 재물·지위·명예 앞에서 의로움을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백색순교가 아닐까 한다.

또한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의 문화를 창달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자살, 낙태, 살인, 사형, 기아, 폭력, 전쟁 등 생명윤리를 거스르는 죽음의 문화를 극복함으로써 하느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치 선택적 존재인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부단히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라 자부한다면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육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잘나의 기쁨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리고 생명의 문화에 동참하고자 할 때 비로소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의 순교영성을 본받고 복음적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문태 힐라리오 가톨릭대학교 교수

프란치스코 교황과 클래식 음악



“이처럼 치명적인 병마를 이겨냈고,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던 이 피아니스트의 이름은 클라라 하스킬(Clara Haskil, 1895~1960)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 인터뷰를 통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신 피아니스트죠.”

다섯 살에 딱 한 번 들은 모차르트 소나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 치는 신동이었고, 10대에 이미 본격적인 피아니스트의 길을 걸으며 눈부신 재능으로 평단과 관객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감성과 지성, 미모까지 갖춘 그녀의 음악 인생은 탄탄대로로 보였죠. 하지만, 꽃다운 열여덟 살, 믿을 수 없는 불행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뼈, 근육, 세포까지도 모두 영켜 붙는 ‘다발성 신경경화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것입니다.

4년 동안 온 몸에 깁스를 한 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구부러졌고, 한창 아름다워야 할 외모는 노파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그녀를 돌보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과 고독뿐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병마와 싸운 지 8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형클어진 머리에 뒤틀린 몸, 손까지 곱아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반 위를 움직이는 손가락들은 건반 위에서 너무나도 맑고 영롱하며 평온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가혹한 운명을 딛고 일어난 것이죠.

그녀는 어린 아이의 마음 아니면 연주하기 힘들다는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특히나 탁월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환생’, ‘모차르트 위의 모차르트’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시련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병마와 함께 견뎌내야 했죠. 뇌졸중이 급습했고, 뇌와 척수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실명할 가능성에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위기가 여러 차례였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고, 이후 10여 년을 불꽃 같은 연주 활동을 펼쳤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나는 행운아였다. 항상 벼랑 끝에서 있었지만,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한 번도 굴러 떨어지지 않았다. 신의 도우심이였다.”

1960년, 그녀는 66세를 일기로 하느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이에 독일의 유명한 한 음악 비평가는 이런 말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녀는 피아노의 성자로 일생을 살았다.”

이처럼 치명적인 병마를 이겨냈고,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던 이 피아니스트의 이름은 클라라 하스킬(Clara Haskil, 1895~1960)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 인터뷰를 통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신 피아니스트죠.

교황님이 우리를 방문하셨던 기간에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천상의 선율, 교황의 음악가들’이라는 제목으로 8일간 음악 특집을 했었습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유구한 역사의 가톨릭교회 음악과 음악을 사랑했던 역대 교황님들에 대한 원고를 쓰면서 종교가 다른, 종교가 없는 다른 많은 분들도 보내 주시는 관심에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이번에 관련 자료들을 모으면서 실제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클래식 음악을 참으로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괜히 기뻐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연주뿐 아니라, 베토벤, 바흐, 바그너의 음악까지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종교음악 중에서는 모차르트의 <대미사>(Gro ß e Messe) KV427의 신경(Credo) 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Et incarnatus est)를 “하느님께서 인도하는 탁월한 음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정말로 평온하고도 아름다운 곡이니까 아직 들어 보지 못한 분들은 꼭 한 번 찾아 들어 보세요. 음악 안에서 교황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위로, 벽찬 감동을 그분이 다시금 떠올리면, 어지러웠고 복잡한 생각들도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니까요.

교황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음악, 기도, 그리고 평화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인용 아가다 KBS 1FM '새아침의 클래식' 작가



330척에 맞선 12척의 배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명량

7월 30일 대개봉

최민식 류승룡 조진웅 김명곤 진구 이정현 권율 노민우 김태훈 이순훈 오타니 료헤이 박보검 김원해 이혜영 장훈녕 김길동 김강일 김한민 김한민

희생과 애민의 정신이 세상을 구한다

영화 '명량'(김한민 감독)의 기세는 대단했다. 1,000만 관객을 가뿐히 넘더니 9월 3일 오전 9시를 기하여 관객수 1,700만을 돌파했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로서 그동안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바타'의 기록(13,624,328명)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순항하고 있다. 한 영화에 1,700만의 관객이 몰렸다는 것은 화제를 넘어 경이에 가깝다.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기준으로 5,000만, 이 중 15세 이상 인구는 4,300만 정도이니 2.5명당 1명 꼴로 '명량'을 봤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체 '명량'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사실 영화관계자나 비평가들의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캐릭터의 매력이나 사건 전개에 치밀함, 이순신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 서사가 갖추어야 할 미덕에 있어 흠결이 적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여기에 고의든 실수든 극적 효과를 위한 선택이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혹은 13척)로 왜선 330척을 물리쳤다는 내용은 왜선 133척(『난중일기』를 근거삼아)을 극적으로 과장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역사적 상상력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고, 따라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화 '명량'의 스토리는 오히려 이런 논쟁을 무화시켜 버린다. 영화는 역사교과서가 아니다. 그런 만큼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나 전문가들이 논증하고 적시해야 한다. 일반관객이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것은 아니란 이야기다. 관객이 영화관을 찾은 것은 영화 '명량'이 그들이 갈망하는 것,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고, 적어도 다시 일깨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분투하는 한 영웅의 모습이였다.

명량해전은 정유재란이 시작된 1597년 9월에 벌어졌다. 두 달여 전 있었던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궤멸되다시피 했고, 그나마 배설이 12척의 배를 끌고 도망 나와 전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미 이순신은 선조의 의심과 노여움을 사

드라마 | 2014.7.30 | 128분
한국 | 15세 관람가 | 감독 김한민





식탈관직과 압송, 고신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쇠한 상황이었지만, 권을 장군 휘하에서 이른바 '백의종군'을 거쳐 칠천량의 대패를 계기로 다시 통제사의 직위를 제수 받는다. 영화 '명량'은 이러한 정황을 배경에 두고 압도적인 수의 왜선이 공격해옴에 따라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젖은 조선 수군의 불안과 분열을 중심으로 펼쳐나간다.

영화에서 이순신(최민식)은 강건하고 태산 같은 영웅이 아니다. 그 역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졌으며, 임금으로부터 버림받고 동료장수들로부터는 의심 받으며, 부하로부터도 이해 받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외로운 존재로 비춰진다. 거북선(구선)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저 막대한 왜군들을 어찌 물리칠까, 당연히 시름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순신의 처지인 것이다. 누란의 위기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수난은 이순신으로 하여금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함을 새기게 한다. 그 방법은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 '독버섯처럼 만연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 이순신은 자신이 죽어야 함을 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 배 천 배 큰 용기로 배가되어 나타날 것"이므로,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른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必死則生 必生則死)."

이순신의 영웅으로서의 면모는 그가 장수로서 탁월한 지략과 전략을 갖춘 것보다 오히려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드러진다. 이순신은 왜 싸우는가를 묻는 아들 이회(권율)의 말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의리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좇아

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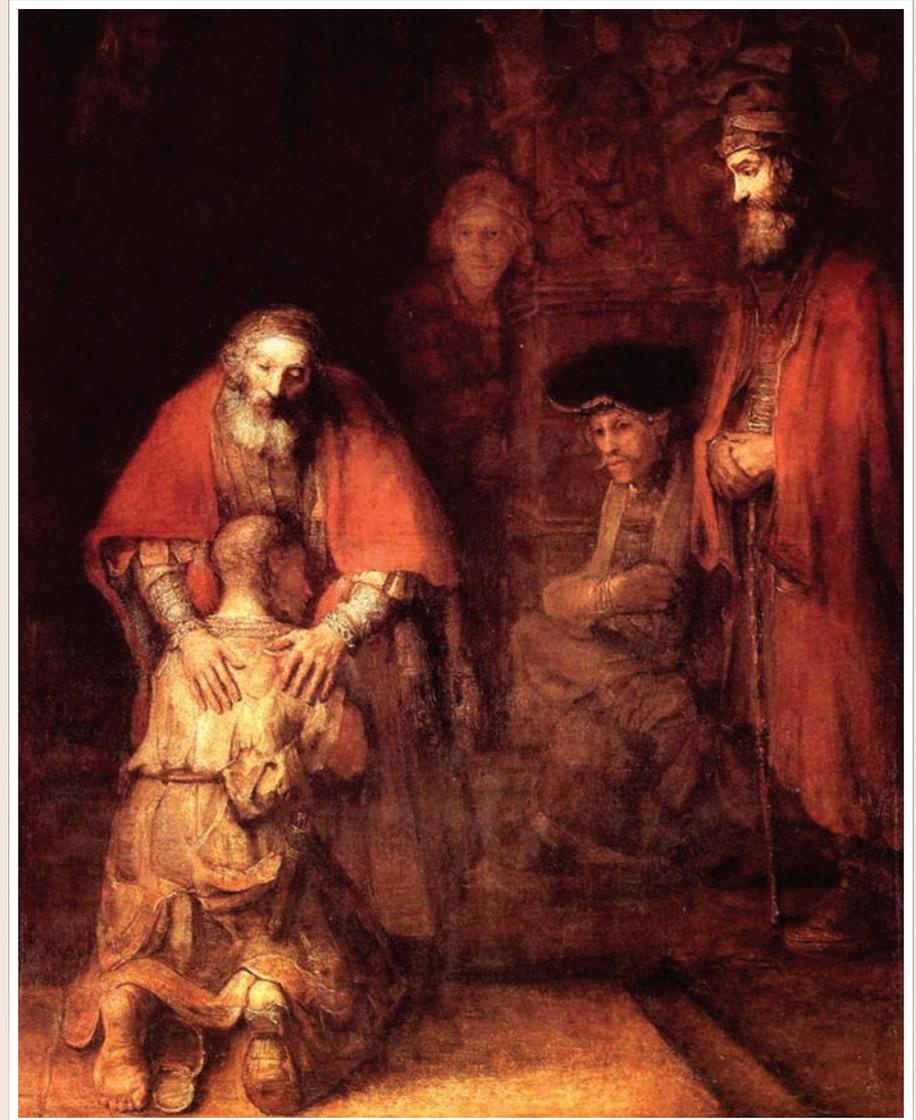
그의 이러한 정신은 명량의 바다에서 왜선과 함께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가는 대장전을 백성들이 힘을 합해 끌어내는 '천행'을 맞보게 한다.

영화 '명량'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아니 우리 관객이 '명량'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희생과 애민의 정신 그리고 그 실천이 사람을 움직이고 민족과 국가를 구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실천하신 희생과 사랑의 가르침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영화는 시대의 거울이고 사회의 반영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영화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삶의 흔적이다. 때로 왜곡되고 때로 건강하지 못한 이미지, 내용들이 넘쳐나기도 하지만, 영화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매체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명량'의 경우도 이순신 장군을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서 재발견하게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망과 회구를 그 인물 속에 투영시킨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명량'은 소통과 상호존중, 이해 그리고 배려와 섬김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덕목임을 상기시킨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은 어떠한가 하는가 하는 담론에 하나의 방향타로서 작동한다. 그것이 '명량'의 힘이다. 

조혜정 기타리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렘브란트의 자화상 '돌아온 탕자'



1668~1669년, 캔버스에 유화, 264,2×205,1cm.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미술관

“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

대전 세계청년대회에서 무대에 선 한국의 젊은이들이 <돌아온 탕자>를 연기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경 속 <돌아온 탕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쑥삭 와 박혔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아버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는 집 떠난 아들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가장 높은 테라스에서 늘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았다. 그냥 먹을 것과 옷을 입혀주고 안아주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몇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에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용서의 하느님이시다.”

교황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료하여 이탈리아어를 기록하지 않고도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잘못된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하느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죄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이 솟아남을 느꼈다. 잘못을 뉘우치면 하느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니 얼마나 고무하신 하느님인가.

교황님이 일깨워주셨다. 용서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교황님께서 살아 있는 말씀으로 일깨워주셨다. 알고 있는 것과 느끼고 깨

닫는 것이 다름을 어렵פות이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온 탕자>를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은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된 렘브란트의 이 작품이다. 내가 다니는 성당에도 복제품이 있을 정도로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이다. 올 여름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드디어 이 그림과 만났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림의 크기는 사람의 키를 훨씬 넘길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작품의 세로가 2미터 62cm이니 벽에 걸어 놓고 보면 3미터를 훌쩍 넘기게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림을 보는 순간, 이 그림이 작가가 사망하던 해에 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림의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성서 중심의 해석 외에도 작가 개인의 이야기를 그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누구의 주문을 받고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주제였다. 늙고 병든 화가에게 남 이야기를 그리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다. 그는 절실한 마음으로 거대한 화폭에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기로 작정했을 것이다.

렘브란트는 한때 귀족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가던 화가였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렘브란트 미술관이 그의 저택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두 번의 결혼생활과 파산, 가족의 연이은 사망을 거치면서 말년의 그에게는 현웃 몇 벌과 화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

았다. 불후의 명작 <돌아온 탕자>는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하고 종국에 가서는 가난뱅이로 전락한 화가가 죽기 직전 젖 먹던 힘을 다해 그린 그림이다. 그러니 그림 속 탕자는 바로 화가 자신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죽기 직전의 화가가 성경 속 <돌아온 탕자>를 빗대어 하느님께 자신의 평생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

렘브란트가 그린 것은 방탕한 아들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안기는 순간이다. 화면의 거의 절반은 부자지간의 상봉이 차지하고 있다. 아들은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헤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신발은 굽이 닳아 슬리퍼로 변한 지 오래다. 그나마 한쪽은 겨우 발끝에 걸치고 있으나, 다른 한쪽은 벗어져서 더러운 발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머리는 죄수를 연상시키며 이견 완전히 거지 중 상거지 꼴이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두 손을 아들의 등에 포근히 대고 안아주고 있다. 그리고는 말하는 듯하다.

“ 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버지는 너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 ”

아버지는 자식이 그 사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식 걱정엔 눈에 진물이 났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하느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다. 순전히 나의 해석이지만 이렇게 말고는 나는 이 그림을 달리 해석할 수 없을 것 같다.

미술작품은 현장에서만 느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현장에

서 보고 내가 얻은 소득은 바로 이것이었다.

미술사적 관점에서 보면 몇가지 스킬이 눈에 띈다.

첫째는 죄 많은 아들의 비참한 얼굴을 보여 주지 않고 뒷모습으로 처리한 점이다.

손자는 말하였다. “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병법이다. ”

화가도 마찬가지다. 보여 주지 않고도 실감나게 만드는 것이 최고 경지다. 그래서인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화가들은 뒷모습 그리기에 도전해 온 했다. 렘브란트 역시 이 그림에서 비참한 아들의 뒷모습을 그림으로써 얼굴을 보여 주지 않고도 관객이 아들의 비참함을 뺏속까지 느끼게 하였다. 아마도 얼굴을 그렸다면 이 그림이 이토록 명작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다음은 탕자의 더러운 발바닥이다. 더러운 발바닥은 카라바조가 <순교하는 성 베드로>에서 선보인 이래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내가 카라바조의 발바닥을 발견한 것 역시 그림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나서였다. 카라바조의 그림 이후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은 너도나도 맨발바닥 그리기에 열을 올렸으며, 물론 렘브란트의 이 작품도 그중 하나다.

렘브란트는 평생 100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렸다. 그에게 자화상은 자서전이자, 가장 진실하면서도 익숙한 자기고백이었다. 자화상은 당연히 화가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지만 렘브란트는 여기서 얼굴 없는 자화상을 그린 것이다. 그가 시대를 초월한 대가인 이유다. 

고종희 마리아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부활 - 레프 톨스토이

톨스토이와 산상수훈

산상수훈(山上垂訓)이라고 부르는 연설은 예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다. 신약성서 <마태복음서> 5~7장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를 기록한 부분인데 '산상설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도덕적인 삶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대변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요"처럼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팔복(八福)으로 시작한다. 그다음에 일정한 형식의 연설이 이어진다. "누가 네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유명한 구절도 여기에 나온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통송하는 주기도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참된 신앙생활의 내면적 본질에 관한 가르침이 짙은 비유로 제시되고 있는 산상수훈은 오랫동안 가톨릭 수도생활의 전형적 규범으로 자리 잡아왔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 (1828~1910)는 이 산상수훈을 기본 골격으로 자신의 철학적 토대를 완성했다. 도덕적 무소유, 무저항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톨스토이즘은 인간 톨스토이의 삶을 보여 주는 단서이면서 그의 문학을 분석할 때 꼭 필요한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쾌락주의자였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을 펴내며 명성을 누리던 무렵까지 톨스토이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작가였다. 그러나 40대 중반부터 불현듯 찾아온 삶에 대한 회의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1880년 이후 그는 원시 기독교 사상에 몰두하면서 기독교적 인간애를 근간으로 하는 톨스토이즘을 체계화한다. 1899년 발표된 <부활>은 예술가이자 사상가인 후반기 톨스토이의 내면이 가장 뚜렷하게 살아 있는 작품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활

<부활>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창녀 카투사가 법정에서 출정하기 위해 교도소 감방을 나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카투사는 어머니가 죽자 지주에게 맡겨져 자란다. 그녀는 18세가 되던 해 지주의 조카인 젊은 공작과 사랑에 빠져 임신을 하게 된다. 공작이 떠나버린 후 카투사는 주인집을 나와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간다 창녀로 전락한다. 그리고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법정에서 겨워 버는 것이다.

법정에 배심원으로 나온 사람 중에는 카투사의 운명을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 네흘루도프가 있었다. 법정에서 카투사를 본 네흘루도프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다 다음날 감옥으로 그녀를 찾아가 용서를 빈다. 하지만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카투사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네흘루도프는 과거에는 양심을 저버리고 그녀를 버렸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양심에 충실하리라 맹세한다. 네흘루도프는 카투사를 구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그녀는 결국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되고 네흘루도프는 열차에 올라 카투사를 따라 시베리아로 간다.

카투사는 수용소에서 만난 정치범 시몬스에게서 청혼을 받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려고 한다. 카투사는 시몬스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자기로 인해 네흘루도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네흘루도프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속마음을 감추고 카투사는 말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말아 달라."고, 그러면서 폐병으로 죽어가는 한 정치범을 돌보는 것을 선택한다.

네흘루도프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전 인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는다. 네흘루도프는 그가 애독하던 신약 속 '산상수훈'의 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고, 인류의 구원은 사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계율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네흘루도프는 결국 그녀를 시몬스에게 보내기로 하고, 자기는 다른 고통 받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기로 한 네흘루도프의 마음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된다.

톨스토이의 신념과 영성

<부활>의 저자 톨스토이는 자신의 저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일갈한다.

"기독교 예술, 즉 현대의 예술은 본래의 의미에서 가톨릭적, 그러니까 전 세계적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인을 결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만인을 결합시키는 데는 두 종류의 감정밖에 없다.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의 아들이고 똑같은 동포라는 자각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 감격 활기 평안 같은 단순하면서도 일상적이며 누구에게든지 받아들여지는 감정이다. 이 두 종류의 감정만이 내용면으로 훌륭한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설 <부활>은 톨스토이의 종교적 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작품이다. 작가의 영성과 하느님의 말씀이 결합해 탄생한 위대한 인류의 고전이다. 종교적 신념은 소설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양심을 선택하기로 한 네흘루도프는 이렇게 독백한다.

"비록 이로 인하여 무슨 뜻밖의 일이 일어날지 하더라도 나를 구속하고 있는 이 허위를 깨뜨려 버리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실행하자. 나는 비열한 사나이로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아 왔다고 말할 하자. 유산도 진실에 따라 처분하자. 그리고 그녀 카투사에게 나는 비열한 사나이로 당신에게 죄 지은 인간이다. 앞으로 당신이 짊어질 운명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자. 그렇다. 그녀를 만나 용서를 구하자. 어린애가 잘못을 빌듯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외친 다음 네흘루도프는 곧이어 신께 용서를 구한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 마음 속에 깃들여 저의 온갖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찾아와 온갖 더러움을 씻어 달

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네홀루도프의 모습은 어쩌면 젊은 날의 방탕함을 후회하는 톨스토이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쾌락에 굴복한 삶을 살았고 이로 인한 처절한 환멸과 자괴감에 괴로워했다. 이런 모순 속에서 톨스토이의 사상과 문학은 탄생했다. 톨스토이는 부활의 원동력을 산상수훈의 교훈에서 찾고 있다. 네홀루도프는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 행복으로 가는 부활이라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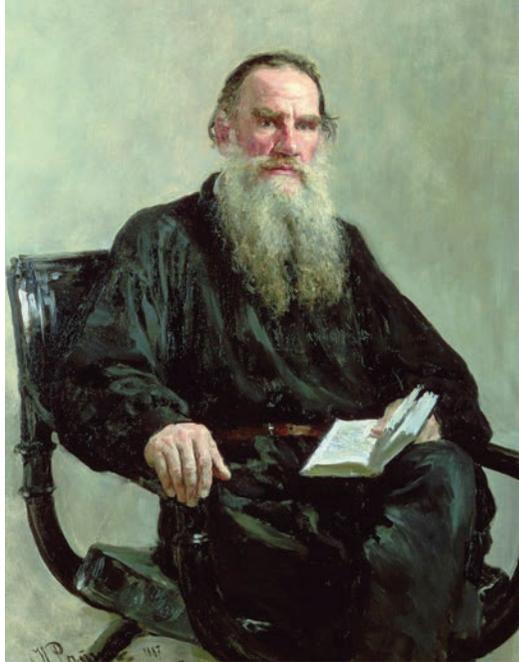
톨스토이가 소설 <부활>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것은 명쾌하다. 인간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영원한 인류의 고전 <부활>

톨스토이의 <부활>은 읽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읽힌다.

로맹 롤랑은 <부활>을 ‘예술적 성경’이라 칭했고, 일본 유명 감독 미조구치 겐지는 <부활>을 모든 멜로드라마의 원형이라고 했다. E. M. 포스터는 어떤 영국 소설가도 톨스토이만큼 위대하지 않다고 했고, 춘원 이광수는 중학교 시절 읽었던 <부활>을 자신의 문학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꼽았다. 미당 서정주도 <부활>에서 창작의 원천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인간의 모든 모순을 뛰어넘어 영혼의 부활을 꿈꾸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소설은 지금도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톨스토이가 <부활>을 완성하기까지는 십 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 기간 톨스토이는 두 남녀 주인



공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대 러시아의 사회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들까지 작품 속에 흡수시키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 때문에 <부활>은 종교적 작품인 동시에 짙은 사회성을 담고 있는 참여적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주인공 네홀루도프는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동안 타락과 향락에 젖은 귀족들의 삶과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의 삶 사이의 모순을 인식하게 되는데, 톨스토이는 주인공의 언행을 빌려 당대의 대중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도덕적 결단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주인공을 등장시킨 것도 대중을 겨냥한 계몽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자신이 목격한 그 모든 참상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그것을 척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야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가 여태 찾지 못한 해답은 바로 예수가 베드로에게 준 해답과 같은 것이었다. 항상 모든 이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 타인을 벌하고 교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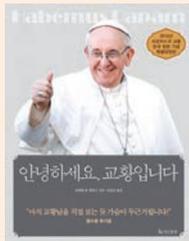
허연 바오로 매일경제신문 문화부장

+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 아멘.

안녕하세요, 교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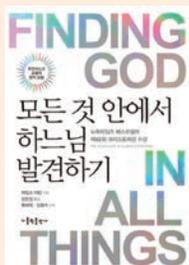
슈테판 폰 캠피스 지음
전진만 옮김
더난출판사
173×225
328면
20,000원



2013년 3월 12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린 콘클라베 현장을 중심으로 전임 교황의 사퇴 배경, 바티칸의 산적한 고민과 과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과 극적인 선출, 첫 행보를 담은 책이다. 바티칸 시국 국제방송국 '라디오 바티칸' 기자인 저자는 교황청 내부 목소리를 포함하여 유럽과 아르헨티나를 오가며 수많은 관계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새 교황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특히 150여 장의 올 컬러 사진으로 새 교황의 표정과 몸짓 하나 하나를 보여 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듯하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제임스 마틴 지음
성찬성 옮김
가톨릭출판사
148×210
816면
25,000원



프란치스코 교황 영성의 원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예수회 사제인 저자가 이나시오 영성을 알기 쉽게 소개한 이 책은 2010년에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2011년에 제62회 크리스토퍼상을 수상하면서 진가를 발휘했다. 이나시오 성인과 그분의 형제 예수회 회원들에 의해 보급된 영신수련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은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 독자들도 이나시오 성인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성과 삶을 본받고 따르게 한다.

희망의 기적

안드레 우엔 반 쩌우 지음
오영민 옮김
바로로딸
140×215
408면
16,000원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13년간 투옥생활을 했고 그중 9년을 독방에서 생사를 오갔던 우엔 반 투안 추기경! 영어(囿)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믿음과 희망을 간직하며 수많은 이에게 오히려 위로와 희망을 선물한 그는 우리 시대 희망의 전사이다. 이 책은 베트남의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추기경의 가족사와 함께 보는 그분의 전기이다. 시복을 앞둔 그분의 삶을 조명하는 이 책은 많은 부문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빛을 비춘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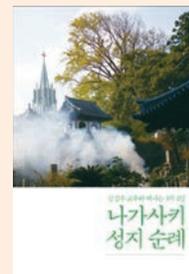
프랑수아 바리용 지음
심민화 옮김
생활성서사
142×205
18,000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는 있지만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되는 메시지로 느껴질 뿐 세상 삶과는 별개로 느껴질 때가 많다. 이 책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왔지만 확실한 신앙관이 정립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신자, 교회의 가르침을 이성과 과학적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비합리적으로만 생각되어 의문을 품고 지내는 신자, 주일미사만 겨우 지키며 기쁨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제시하고 신앙의 기쁨을 절실히 깨닫게 한다.

나가사키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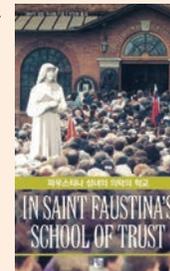
김길수 지음
성바로
152×225
216면
13,500원



'김길수 교수와 떠나는 3박4일 나가사키 성지순례' 프로그램 그대로 옮겨다 실은 책이다. 성지 해설과 화보를 곁들여 독자들은 실제로 성지순례단에 합류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일본 천주교회사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여기서 만나는 눈물겨운 순교 이야기는 벅찬 감동으로 다가와 우리를 참다운 신앙의 길로 이끈다. 일본 천주교회사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앙인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리 지식과 덕목을 김 교수 특유의 구수한 화법으로 풀어낸 재미가 쏠쏠하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의탁의 학교

자비의 성모 수녀회 지음
여진주 옮김
으뜸사랑
132×190
235면
11,000원



파우스티나 성녀 영성의 중요한 특성인 하느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알려 주는 책이다. 하느님께 자신을 아이처럼 내맡기는 의탁의 태도는 파우스티나 성녀를 깊은 영성생활로 이끌었고,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결합시켰으며, 그분의 구원사업에 완전하게 동참하도록 했다. 완덕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는 이 책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의 신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우스티나 성녀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의탁의 길을 걷는 데 크나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찬의 전례 Liturgy of the Eucharist



말씀의 전례가 ‘하느님 말씀의 식탁’이라면 성찬의 전례는 ‘그리스도 몸의 식탁’이 차려지는 것이다. 성찬의 전례는 예물 준비와 감사기도, 성령 청원과 축성, 주님의 기도와 평화예식, 영성체(Communion), 영성체 후 기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 Presentation of the Gifts (예물준비) / Preparation of the Altar (제대 준비)

■ 예물준비기도

Priest (P) Blessed are you, Lord, God of all creation. Through your goodness we have this bread to offer, which earth has given and human hands have made. It will become for us the bread of life.

All(A) Blessed be God for ever.

P Blessed are you, Lord, God of all creation. Through your goodness we have this wine to offer, fruit of the vine and work of human hands. It will become our spiritual drink.

A Blessed be God for ever.

P Pray, my brothers and sisters, that our sacrifice may be acceptable to God, the almighty Father.

A May the Lord accept the sacrifice at your hands, for the praise and glory of his name, for our good, and the good of all his Church.

■ Preface Dialogue: (감사기도)

P The Lord be with you.

A And also with you.

P Lift up your hearts.

A We lift them up to the Lord.

P Let us give thanks to the Lord, our God.

A It is right to give him thanks and praise.

P Holy, Holy (거룩하시도다):

A Holy, holy, holy Lord, God of power and might, Heaven and earth are full of your glory. Hosanna in the highest.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kneel]

■ 신앙의 신비여

사제가 Let us proclaim the mystery of faith: 하면 신자들은 다음 중 하나로 응답한다.

A - Christ has died, Christ is risen, Christ will come again.

or B - Dying you destroyed our death, rising you restored our life. Lord Jesus, come in glory.

or C - When we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we proclaim your death, Lord Jesus, until you come in glory.

or D - Lord, by your cross and resurrection, you have set us free. You are the Savior of the World.

■ 영광송과 아멘

P Through him, with him, and in him, in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all glory and honor is yours, almighty Father, for ever and ever.

A Amen! [노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신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기도로 성찬의 의식을 시작한다.

■ COMMUNION RITE (성찬의 의식)

주님의 기도

P Let us pray with confidence to the Father in the words our Savior gave us.

or Jesus taught us to call God our Father, and so we have the courage to say:

or Let us ask our Father to forgive our sins and to bring us to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or Let us pray for the coming of the kingdom as Jesus taught us.

A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P Deliver us, Lord, from every evil, and grant us peace in our day. In your mercy keep us free from sin and protect us from all anxiety as we wait in joyful hope for the coming of our Savior, Jesus Christ.

A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now and forever.

■ Sign of Peace (평화의 예식):

P Lord Jesus Christ, you said to your apostles: I leave you peace, my peace I give you. Look not on our sins, but on the faith of your Church, and grant us the peace and unity of your kingdom where you live for ever and ever.

A Amen.

P The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always.

A And also with you.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Deacon or Priest Let us offer each other a sign of peace. [The ministers and all the people exchange an embrace, handshake, or other appropriate gesture of peace with those near them, according to local custom.]

하느님의 어린 양

A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grant us peace. [kneel]

■ Communion (영성체):

P This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ppy are those who are called to his supper.

A Lord, I am not worthy to receive you, but only say the word and I shall be healed.

영성체를 하는 방법은 나라나 교구별로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보통 신자들이 줄을 지어서 앞으로 나간 다음 서서 성체를 받고 자리로 돌아온다. 어떤

경우에 성체 분배자는 성당 안의 다른 장소에 가서 성체 분배를 하기도 하고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자리에 가서 성체를 줄 수 있다. 미국에서 영성체는 보통 축성된 성체와 성혈 두 가지를 모두 주는 양형 영성체 형태로 행해진다. 성체는 손으로 받도록 권장되지만 혀로 받을 수도 있다. 성체를 영한 후 자리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성체를 영할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것이 장려되고 있지만 곧바로 자리에 앉거나 무릎 꿇고 침묵 속에 기도하도록 하는 교구도 많이 있다. 성체분배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침묵 속에 기도를 드리거나 시편 또는 찬미가를 부른다.



■ Prayer after Communion (영성체후 기도):

P Let us pray.

사제는 영성체후 기도를 바친다. 기도 내용은 미사마다 달라진다. 기도 후 신자들은 아멘이라고 동의를 표시한다. 영성체 후 기도를 마친 후에 공지 사항 등을 전한 다음 마침 예식(Concluding Rites)으로 들어간다. ☩

※영문미사통상문 출처 :

Basic Texts for the Roman Catholic Eucharist, THE ORDER OF MASS (<http://catholic-resources.org/ChurchDocs/Mass.htm#Eucharist>)

김태식 토마스 연합뉴스 기획위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인물탐구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선정, 집필작가 공개 모집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이하 한국평협)는 평화신문과 함께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발간 사업을 펼치며 공개 추천을 통해 접수된 인물 가운데 1차 연도 인물을 선정하고, 이분들의 삶을 재조명해 세상에 펼쳐줄 역량 있는 작가를 9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1차년도 집필 대상으로 선정된 인물은 국제보상운동의 선구자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했던 교육자·정치인 장면 요한, 교육과 의료로 제주를 일으킨 여성 선구자 최정숙 베아트리체, 가진 바를 나누는 참교육자 김익진 프란치스코, 갇힌 이들의 대부인 사도법관 김홍섭 바오로 총 5명이며 작가 공모를 통해 권은정, 김문태, 이미애 작가가 우선 집필자로 선정됐다. 서상돈, 장면 선생의 집필자는 추가 모집한다.

한국평협 실천캠페인 논의에 이어 여성 사도직활동을 지원예산 편성키로



한국평협은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지난 7월 11~12일 개최된 제2차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예산 일부의 항목을 변경하여 여성 사도직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또한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었던 실천 캠페인 전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갔다.

회의 첫날 개막미사에 이어 원주교구 사목국장 김민규 신부의 '복음의 기쁨'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저녁에 이어진 상임위원회에서는 대국민 실천캠페인 '답게 삼시다' 전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 사항은 더 논의하기

로 했다.

참석자들은 둘째 날 배론성지 여진천 주임신부의 성지 안내로 황사영백서토굴 등을 순례하고 배론성당에서 원주교구장 김지석 주교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했다. 강론을 통해 김지석 주교는 "시복식을 준비하면서 참 짧은 시일에 시복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황님의 방한을 한 달여 앞두고 준비에 바쁘실 것이다. 내 뜻에 안 맞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교황 방한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VIVA IL PAPA

프란치스코 교황 평신도사도직단체 지도자들과의 만남



한국평협 권길중 회장과 각 교구평협, 회원단체장 등 153명은 꽃동네 영성원 성당에 들어서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향해 'viva il papa'를 외치며 교황님을 만나는 기쁨의 순간을 함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길중 회장과 포옹하고 묵주를 선물로 주시며 사회자 석으로 자리를 옮겨 "교회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이 보태는 도움이 어떤 특별한 것이든,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 교리교육과 영적지도를 통해 평신도신자들을 더욱 알차게 양성하는 일을 추진하시도록 요청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춘천평협과 자매결연 모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와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춘배) 임원들이 지난 7월 19일 토요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결연모임

을 통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평협 담당사제 홍기선 신부와 참석한 두 교구평협 임원 30여 명은 서울평협이 마련한 일정에 따라 임진강 황포돛배 관람,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을 돌아보고 점심을 함께 하며 두 교구 평협의 화합을 다지고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한 일치를 나누기로 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황 방문 기념 및 AYD,KYD 축하음악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대전PBC 칸타빌레 챔버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천주교 대전교구 청소년사목국,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음악회 'The Peace'가 6월 4일 오후 3시와 7시 30분에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특별히 교황의 방문을 기념하고,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AYD)와 제3회 한국청년대회(KYD)를 축하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감동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축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대전교구 방문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처럼 은혜로운 교황님의 방한을 준비하면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청소년사목국이 우리의 기쁜 마음과 설렘을 음악회를 통해 표현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전서부지구 한생명 운동 실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생명운동 본부(회장 이명수, 담당사제 김명현)는 6월 14일(토) 대전서부지



구(지구장 김용남 신부) 탄방동성당에서 한생명(현혈.장기기증.조혈세포기증) '생명 사랑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인천가톨릭합창단 창단연주회



6월 12일(목)부터 인천가톨릭합창단(단장 조미애, 담당사제 빙상섭) 주최, 교구평협(회장 정기희, 담당사제 안규태) 주관으로 창단 연주회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창단연주회의 취지는 청소년쉼터 후원기금 마련 및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창단연주회에서 모은 후원금을 조미애 단장이 가톨릭청소년 쉼터 소장인 이재학 안티모 신부에게 전달했다.

인천가톨릭미술가회,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개최

6월 20일(금)부터 26일(목)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실실에서 인천교구 가톨릭 미술가회 주최한 '평화-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제목을 붙인 2014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이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서 정신



철 주교는 “신앙 안에 모인 미술가들이 하느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이번 전시회를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강용운 신부 금경축일



6월 27일(금)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아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와 사제단 집전으로 사제 성화의 날 미사를 봉헌한 후 교구평협 주관으로 강용운 시몬 신부의 금경축 축하식을 열었다. 강용운 신부는 답사에서 “한국인 사제가 없던 시절에 서품을 받아 추억들이 많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 크나큰 은총을 주신 하느님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은사·치유세미나

인천교구 성령쇄신봉사회는 교구 전신자를 대상으로 7월 14일~8월 25일 매주 월요일 7주간 답동문화관 3층 성령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사·치유세미나를 진행했다.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 쇄신을 위한 과정과 우리의 협력’,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교구 꾸르실로 사무국 임원 워크숍



8월 23일(토)~24(일) 강화 갑곶성지 50주년기념영성센터에서 꾸르실로 사무국(담당사제 김성만) 임원 워크숍이 있었다. 사제를 비롯하여 23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2014년 전반기 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 2015년 사업계획에 관한 많은 제언이 있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여성연합회 ‘신앙·인성 아카데미’ 개최



수원교구 여성연합회(회장 정성연, 담당사제 이근덕)는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교구청 지하강당에서 김영희(유스티나) 수녀의 5회에 걸쳐 ‘분노 관리 프로그램’으로 ‘신앙·인성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김영희 수녀는 강의에서 “모든 감정은 필요하고 그 역할이 있다.”면서 “올바른 감정 표현을 통해 개인 및 관계의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삶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감정 조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4 성령강림 대피정



수원교구 성령쇄신봉사회(회장 이종운, 담당사제 정광해)는 6월 7일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교구 성령세미나 도입 40주년(1974-2014) 기념 성령강림 대피정을 실시했다. 피정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사도 2,17)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다섯 시간 동안 제1강의는 차동엽(미래사목연구소 소장) 신부, 오후 제2강의는 한연흠(용인대리구 백암본당 주임) 신부가, 1·2 강의 후에는 피정에 참가한 신자 5,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 주례의 파견 미사로 봉헌됐다.

이날 파견미사에서 이용훈 주교는 “오늘 하루 동안 내려 주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미사 중에 늘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교구는 1974년 1월 독일인 글라리사 수녀가 성빈센트병원에서 성령기도회를 열고, 같은 해 10월 성령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성령쇄신봉사회가 발족됐다.

성체신심 1일 대피정



수원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회장 이소남, 담당사제 배명섭)는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을 앞둔 6월 20일, 수원대리구 권선동성당에서 ‘성체신심 1일 대피정’을 개최하였다. 이날 피정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라는 주제로 회원 및 신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시 30분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배명섭 신부는 인사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건전지를 충전하듯 우리도 영적으로 충전해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면서 “주님 안에서 충전함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여야 한다.”고 했다.

최덕기 주교는 특강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사실 7가지 청원을 하는 기도”라며 “우리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청원기도를 바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 제57차 영성단계 피정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단장 김상국, 담당사제 이근덕)가 주관하는 제57차 영성단계 피정이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레지오 단원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영성관(죽산성지)에서 열렸다. 전 단원들은 대침묵 가운데 피정의 참의미를 깨달으며, 참회예절과 성체현시·성체조배·고해성사·성체강복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죽산성지 전담 이철수 신부는 ‘레지오 단원 순교 영성 강의’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기도하라”고 단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상국 단장은 ‘레지오 교육’을 통해, 브레시디움과 꾸리아 관리운영과 지침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했다.

2014 청·장년 친선 축구대회



수원교구 축구선교연합회(이하 축선련, 회장 윤용현, 담당사제 전삼용)는 7월 20일 양평에 위치한 강상체육공원에서 '2014 수원교구 청·장년 친선 축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6개 대리구에서 청년부(20~30대)와 장년부(40~50대)로 나뉘어 뽑힌 선수들이 2개 구장에서 부문별로 경기당 25분씩 풀리기로 15경기를 치렀다. 청년부에서는 체력과 개인기가 뛰어난 성남대리구가 3승 2무의 성적으로 우승을, 안양대리구가 1승 4무로 준우승을 했다. 장년부에서는 수원대리구(3승 2무)가 1위, 평택대리구(3승 1무 1패)가 2위를 차지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구설정 10주년 기념 '교구성령대회' 개최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문호, 담당사제 강신모)는 교구 설정 10주년을 맞아 교구성령새신봉사회와 공동으로 '교구 설정 10주년 기념 교구 성령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9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의정부 소재 신한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성령대회에서 황창연 신부의 강론과 신상현 수사의 치유기도로 3000여 명의 신자들을 열광시켰다.

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며 "이번 성령대회를 계기로 교구 신자들의 신심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교구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 민족화해센터 개관

의정부교구(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숙원 사업 중의 하나 이던 '민족화해 센터'를 개관했다. 지난 7월 5일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에 위치한 참회와 속죄의 성당(주임신부 이은형) 안에 민족화해센터를 개관해 축복식을 가졌다. 교구 사제단과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홍 파주시장 등 내외빈 4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교구장 이기헌 베드로 주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어진 센터이니만큼 앞으로 남북화해와 일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확대하고 분단으로 인한 민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센터로서의 소임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시복경축문화예술제



대구대교구 평단협(회장 박해룡, 담당사제 박영일)가 역사적인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순교자 124위 시복을 축하하기 위해 "순교정신 이어받아 새 복음화 이룩하자."라는 슬로건과 로고를 만들고 준비해 온 시복경축문화예술제(8월 20~30일)가 8월 30일 소음악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시복경축문화예술제는 대구평단협 단체인 미술인회, 문인회, 전례꽃꽂이회, 사진가회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뿐만 아니라 관덕정 순교자 현양사업 후원회의 여러 행사들을 개최하고 새로 제작한 대구지역 순교복자 20위 영정 진본을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학생들을 위한 미술실기대회,

백일장, 핸드폰 카메라 촬영대회를 함께 개최하였다. 또한 이번 예술제 전시회, 음악회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의 작품과 출연진을 담은 도록집(200페이지)을 발간했다. 이번 예술제는 참가 단체들의 대표 12명으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종덕, 사무국장 이영구)를 구성하였고 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교구 평신도위원회(위원장 이호성)와 각 대리구 본당 총회장단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동참하여 이룬 결실이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시복기념 학술 강연회



2014년 6월 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학장 홍경완 신부)에서 '이정식 요한, 양재현 마르티노 시복기념 학술 강연회'가 열었다. 부산교구 평협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교구민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학술 강연회는 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한건 신부(부산교회사연구소장), 손숙경 부산교회사연구소 연구위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한윤식 신부, 오륜대 순교자 성지 담당 전수홍 신부의 강의가 있었다. 이어 동아대학교 이훈상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 토론(질의응답)이 있었고, 부산교구장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했다.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순교자들의 삶을 다시 한 번 새롭게 기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진정한 의미의 순교 영성을 이 시대에서 추구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돌산공원 무료급식봉사



부산교구 평협 임원들은 2014년 6월 17일(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돌산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했다. 부산교구 사회사목국이 매주 화요일마다 시행하고 있는 무료급식으로 인해 우범지역이었던 이곳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백서 발간 좌담회



2014년 6월 20일 오후 6시 부산교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교구 평협 주관으로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백서 발간위원회(위원장 하창식) 위원들과 도보성지순례에 참가한 한건 신부(도미니코·부산교회사연구소 소장) 등 성직자, 전·현직 평협 임원들이 모여 좌담회(진행 강송환)를 가졌다. 2007년 부산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여 갖게 된 2박3일간의 도보순례가 계기가 되어, 2008년 8월부터 시복·시성을 기원하며 순교자인 수영구 장대골 성지에서 온천천을 지나 오륜대 순교자성지까지 14km를 걷는 도보 순례가 시작되었다. 지난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부산교구 사상 첫 시복자 두 분,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부산 수영 장대순교성지에서 순교)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고, 7년(70차)의 도보순례기간의 각종 자료 기록과 참가자들의 체험담과 미담 등을 담은 도보성지순례백서 발간을 앞두고 이뤄진 좌담회였다. 백서는 9월 27일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있을 부산교구 시복감사미사 때 봉헌될 예정이다.

도보성지순례길 기념입간판 축복식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 성지에서 김경수 토마스 씨 가족(3대 순례자), 시복준비위원회 위원, 부산교구 평협 임원과 광안성당 장대골 관리 후원회원 등 모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구장 황철수 주교 주례로 '도보성지순례길 기념 입간판 축복식'을 가졌다. 도보성지순례길 기념입간판을 부산교구 평협에서 후원했다. 황철수 주교는 축복식 강론 중에 "우리 교구 복자들의 신앙의 그 뿌리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 주님의 굳건한 신앙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2008년 8월에 시작하여 2014년 5월 70차로 막을 내린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를 기념하기 위해 '수영장대성지'와 '오륜대순교성지'에 도보성지순례 기념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본당평협 회장단 연수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박승호, 담당사제 서철)는 6월 26일 교구청회의실에서 본당 평협 회장 및 선교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황님 청주교구



방문에 따른 준비 현황과 교황님 맞이 40일 고리기도, 이번에 시복되는 청주교구 출신 윤지충 등에 대한 서찰 담당사제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제수품 25주년 은경축 감사미사

청주교구 평협은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각 본당에서 은경축을 맞는 신부 네 분에 대한 '사제수품 25주년 은경축 감사미사' 봉헌과 축하식을 가졌다. 올해 은경축을 맞는 신부들은 지난 1989년 6월 29일 사제수품을 받은 김영환 프란치스코 신부(교현동 성당), 이중섭 마태오 신부(오송성당), 안광성 타대오 신부(내덕동 주교좌 성당), 최상훈 디모테오 신부(사창동 성당) 등 다섯 분이다. 해외 사목 중인 김남오 알로이시오 신부의 은경축 미사는 6월 22일 미국 앵커리지 성김안드레아 한인성당에서 열렸다.

교황방문 기념 음악회



청주교구 교황방문 준비위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북 방문을 기념하는 무료 음악회를 7월 7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생명·나눔 콘서트'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음악회는 새생명지원센터,

PBC 평화방송·평화신문, (주)현대HCN 충북방송 주관으로 열렸다.

콘서트에는 인순이·안치환·더원 등 인기가수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가 감동의 연주를 선사했으며, 청주시립국악단·무용단, 안젤루스도미니 어린이합창단이 무대에서 나눔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준비위원장인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꽃동네 장애인과 만남은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온몸으로 호소하는 외침"이라며 "무료 음악회는 충북 방문 40일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지역민과 화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내 지자체 단체장 및 도·시·군의원 신자 당선자 취임 축하 미사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총회장 김덕곤, 담당사제 강영구)는 7월 8일(화) 교구청에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천주교 신자 기초단체장과 도, 시, 군의원을 대상으로 '당선(취임)축하 미사'와 조촐한 축하연을 열었다. 이날 미사는 교구장 안명옥 주교 주례로 교구청 사제들이 공동 집전하였으며, 안상수(베드로) 창원시장과 하창환(루도비코) 합천군수, 도,시,군의원 등 교구 내 신자 당선자 35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평협 임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마산교구의 발전과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주어진 평신도사도직을 열심히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영구 총대리는 미사강론에서 "리더십 3.0시대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는 영성적 리더가 되

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순교복자 5위 탄생 경축대회 겸 간담회



'복음의 기쁨을 이웃에게.'

124위 시복식에 따라 마산교구에서 순교자 다섯 분이 복자품 반열에 오른 것을 기념해 마산교구와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공동주관으로 경축대회를 열었다.

'복음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를 경축대회 주제로 정하여 순교영성을 실현하는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교구 내 4개 지구(71개 본당)를 순회하면서 일선 본당 회장단, 여성협의회 회장단, 레지아 임원들과 소통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성협의회 도보 순례



마산교구 여성협의회(회장 김연숙, 담당사제 강영구)는 5월 26일 '거제 천주교 순례길' 도보 순례를 실시하였다. 거제지구 여성협의회(회장 김안순)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4개 지구 2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가톨릭 농민회 열린 강좌 EM 삼푸 · 비누 만들기



마산교구 가톨릭농민회(회장 정용우, 담당사제 박창균)는 5월 12일 중동성당 강당에서 EM 삼푸 · 비누 만들기 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좌에는 우리농 창원지구 생활공동체 회원과 신자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EM의 유용함과 사용법, EM 삼푸 · 비누 만들기, 퇴비 만들기,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2일 옥암동성당에서 지구 내 신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황님 권고문 ‘복음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신앙강좌를 실시하였다.

목포가톨릭대학교 조발그니(빈첸시오) 신부의 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신앙강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방문을 준비하면서 신앙심 고취와 교회가 걸어갈 길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세월호 유가족 십자가 도보순례에 동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 두 분과 가족은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남은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염원하는 도보순례가 있었다. 이번 도보순례는 십자가를 메고 안산 단원고를 출발하여 진도 팽목항을 거쳐 대전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는 900Km의 거리로 40여 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에 광주대교구 신자들은 광주와 전남지역을 순례하는 동안(7월21일~8월6일) 구간마다 적극 동참하여 함께 걸으며 위로와 격려를 보내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세월호 사건 100일 참회와 새로움을 위한 미사’가 7월 24

일 목포 연동성당에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됐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광주방문 기념비 제막식 및 축복식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광주 방문을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과 축복식이 8월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소공원에서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김 대주교는 강론에서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당시 여전히 군사정권의 공포가 가득했던 광주를 찾아 5.18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용서와 화해를 통해 영원한 승리가 되자’고 호소하셨다.”며 “당시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5.18의 상징인 금남로와 도청 분수대를 통과하시고 이 곳 경기장에서 광주시민을 위로하셨다.”고 회상했다. 이날 제막식과 축복식에는 옥현진 총대리 주교와 윤장현 광주시장, 주경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기념비 조각가 배현 형제를 비롯해 교구 사제와 평협, 여성위원회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마리아 사업회

경주 마리아폴리

2014년 경주 마리아폴리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 871명은 주로 영남호남지역에서 참석하였다. 오후에는 미사, 묵상, 경험담으로, 오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실내의 프로그램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참석자들은 예술(음악, 미술, 문학, 건축), 자녀교육, 부모



교육, 댄스, 산행, 해수욕, 성교육, 다른 나라 문화 등에 대해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문희 대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고, 오직 사랑만 하면서 남은 삶을 살자고 초대해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평창 마리아폴리



올해 마리아 폴리가 ‘서로 간의 사랑’을 주제로 7월 25~27일, 27~29일 두 차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약 1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유흥식 라자로 주교, 옥현진 시몬 주교 등 네 분 주교님도 함께하셨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깨달았으며 마리아폴리의 은총을 간직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포콜라레 젠들 AYD 참석

2014년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AYD(Asia Youth Day), KYD(Korea Youth Day)가 천안 중앙청소년 수련원 그리



고 솔피성지, 해미성지에서 열렸다. 70여 명의 포콜라레젠(Gen)들은 AYD 둘째 날 저녁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그들과 함께하였다.

젠들은 현시대에 만연한 유희과 무관심 그리고 폭력을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소식

제35회 영남 4개교구 가톨릭교수회 합동 피정 세미나 개최



제35회 영남 4개 교구(대구, 마산, 안동, 부산) 교수 합동 피정 세미나가 부산교구(회장 김치영) 주관으로 1박 2일간(6. 30~7. 1)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 센터와 오룬대 순교자 성지에서 '한국천주교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서'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부산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가 '순교자의 삶과 교육자의 삶'이란 특별강연을 통해 훌륭한 가르침은 이론보다는 몸으로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건 담당 신부가 '103위 성인의 탄생과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과정', 전수홍 신부님이 '로마제국과 조선 초

기 박해와 순교의 비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오룬대 순교자 성지 순례를 통해 순교자 박물관 관람, 순교자 묘지 참배,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였으며 부산가톨릭대학교 윤경철 바오로 총장 신부의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느님의 증으로 살아온 순교자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교수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한국가톨릭 농민회협의회

제19회 농민주일 행사 진행



가톨릭농민회는 7월 20일(일), 제19회 농민주일을 맞아 "땅이 있는 한, 씨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으리라."(창세 8,22)라는 슬로건으로 농민주일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와 각 교구 사무국은 강론자료 제작 및 배포, 교구별 기념미사와 행사 등을 각 지역 본당과 함께 진행했다.

계간지 '농민의 소리' 발행

가톨릭농민회는 7월 첫째 주 농민의 소리 101호를 발행해 각 교구 사무국으로 배포했다. 101호부터 매호마다 특집을 정해 본회의 현재를 정리하고 향후를 전망하는 기회를 갖는다. 101호 특집 주제는 '생명농업'이었다.

한중FTA 쌀 전면개방 반대 촉구

가톨릭농민회는 한국농업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질서한 농산물 개방 등의 농업 정책을 질타하며, 농산물 개방 중단을 촉구하고자 7월 14일(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12차 협상장 부근에서 한중FTA 반대 집회를 열었고, 6월 28일(토)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정부에 쌀 전면 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교황 방한 및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 기념 특별전 개최

서울가톨릭미술가회는 서울평협과 공동 주관으로 교황 방한 및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 기념 특별전을 2014년 8월 8~18일 평화화랑에서 개최하였다. 오프행사에는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하여 조규만 주교, 많은 문화계 인사들과 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일어나 비추어라'를 전시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별전시에는 72명 작가들이 역작을 선보였으며, 초기 순교자들의 신앙 정신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예술을 통해 종교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한국 교회 미술의 발전과 토착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전시회 개최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회장 강희덕)는 '평화-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전시 주제로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014년 6월 20~26일 개최하였다.

교구별로 돌아가며 전시회를 주관하는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은 2012년 부산 전시, 2013년 대전 전시에 이어 올해는 인천가톨릭미술가회(회장 김중은)가 주관하고, 10개 교구 가톨릭미술가회 회원 176명의 작품이 출품되어 영적 경험과 종교적 심상의 표현을 통해 미술을 사랑하는 많은 신자들과 시민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예술로써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2015년 한국가톨릭



미술가협회전은 대구대교구가 주관하여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시복미사 참석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회원 단체의 시각장애인 신자들과 봉사자 150여 명은 8월 16일(토)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봉헌된 시복미사에 참석했다. 다른 영역 장애인들과 함께 특별 초대되어 제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황을 뵈고 124위 시복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다.

2014 전국 하계수련대회 개최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8월 25일(월)~27일(수) 강원도 원주 치악산 드림랜드 유스호스텔에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를 주제로 전국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신자들의 심신수련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로, 금년에는 춘천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에서 회원 및 봉사자 37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피정이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 37)의 주제로 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6월 6~8일 2박3일간 전국 14개 교구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일본 가톨릭의사회 임원단 방한



일본 가톨릭의사회 임원단 5명(회장 히토미 시게키 외 4명)이 7월 25~26일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홍영선 교수)를 찾아왔다.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2016년 제16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한국가톨릭의사협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다. 일본 가톨릭의사회 전 회장인 이시지마 부이치 명예원장이 제시한 제16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안)을 가지고 토론을 벌였다.

전국 가톨릭간호대학생 연합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홍현자 수녀)가 주관하는 전국 가톨릭간호대학생 연합피정이 6월 27일(금) 오후 3시 30분부터 28일(토) 오전 12시까지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이루어졌다. 전국에서 가톨릭간호대학생 53명이 참석하였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길’의 주제로 김동렬 안셀모 수사가 1박 2일 동안 피정을 지도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피정 - 제주 성이시돌 자 연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홍현자 수녀) 창립 35주년